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족학박사 학위논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중국 출신 여성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전공
딩 징 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중국 출신 여성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전공
덩 징 야

덩징야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Grace H. Chung (인)

부위원장 이 재 립 (인)

위 원 성 미 애 (인)

위 원 김 소 영 (인)

위 원 진 미 정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한 경험이 중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다문화가족 중국인 아내 14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30~40대 중국인 아내는 80, 90년대에 출생한 중국의 ‘한 자녀정책’ 세대에 속하며,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력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특성을 가진 중국인 아내의 관점과 목소리를 통해 한국 생활 양상과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의 정책적인 요구를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네 달간 진행했으며, 참여자 당 2회, 1회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었다. 심층면접에서 얻은 자료는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중심주제는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센터 이용’,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한 바람’ 등 두 가지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는 이중적 성역할 태도 속에서, 자녀양육과 남편, 시댁의 관계 등에서 겪은 어려움의 해소 및 사회와의 접촉,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했다. 센터 서비스는 이들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외롭고 어려운 외국 생활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센터의 존재는 중국인 아내의 일상에서 큰 위로가 되었다. 센터는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들에게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위안감을 준다. 둘째, 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과 자녀 관련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 아내들의 가진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고 각종 가족활동을 통해 가족관계 개선, 가족 응집력 증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자 살던 중국인 개개인을 한 집단으로 연결해서 이들의 ‘친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센터를 통해 습득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중국인 아내의 정착 초기 어려움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치실현과 취업 욕구가 강한 중국인 아내는 센터의 직업교육, 개인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강사, 마리스타, 통역사 등의 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녀’ 세대인 중국인 아내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하며,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사회통합으로 생각한다. 둘째, 센터 서비스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문화 동화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라고 비판한 선행연구와 달리 중국인 아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중국인 아내들의 직업에 대한 강한 갈망과 함께 직장생활을 한국 사회와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간주함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고, 센터는 외국인 아내의 취업 훈련이나 연계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중국인 아내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 센터의 사회통합 지원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가족생활 지원서비스는 이들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자녀의 사회성 발달 등에 기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센터의 서비스는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학교 자녀 위주로 한정되어 있기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인 아내는 자녀양육을 본인의 역할로 생각함과 동시에 남편의 적극적 참여를 원하기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의 육아 참여 부재와 가부장적 의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의 양육과 교육 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본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참조하여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 지원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과 교육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와 자조모임 등 다문화가족의 특성화사업은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통합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성화사업 영역의 유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주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내용의 심도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의 중간자적 역할의 확대를 통해 타 기관과 체계적인 협업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취업자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에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중국인 아내는 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가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센터는 외국인 아내에게 취업과 개인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주요어 : ‘한 자녀정책’ 세대, 중국인 아내, 가족생활, 사회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주제분석법

학 번 : 2014-31447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5
1. ‘한 자녀정책’ 세대인 중국인 아내의 특성	5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 지원	8
3. 지원서비스가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11
4. 이용자 관점의 지원서비스 연구	19
제 3 장 연구방법	22
1. 연구참여자	22
2. 자료 수집	31
3. 분석방법	33
4. 자료의 신뢰도	34
제 4 장 연구결과	37
제 1 절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센터 이용	37
1. 답답한 가족생활의 탈출구 찾기	38
2. 가족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문화 습득	43
3. 양육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과 센터의 종합적 정보 제공 ·	50
4.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개인역량 강화	59
5. 다문화가족의 생활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64
제 2 절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한 바람	67

1. 양육에 도움을 받았으나,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함	68
2. 가족관계 좋아졌으나, 아내의 일방적 조절	75
3. 초기 어려움을 해결했으나, 심화 서비스 필요	79
4. 정서와 정보 지원, 중국인 네트워크 내에서만 가능	85
5. 사회통합을 위한 센터의 중간 역할	88
제 5 장 결론 및 논의	94
1. 요약 및 결론	94
2. 연구의 의의	99
3. 정책 제언 및 후속연구	101
참고문헌	107
Abstract	118

표 목 차

[표 1]	27
[표 2]	29
[표 3]	35

제 1 장 서론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아내는 모국에 이미 형성되어있는 사회적 지지망과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홀로 새로운 사회 규범과 관습에 직면하면서 아내·어머니·며느리로 살아간다. 이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환경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인생의 주요한 사건들을 단기간에 경험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외국인 아내는 친정가족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 남편 및 시댁과의 언어 및 생활습관 차이 등(박충선, 배나래, 2011; Hwang, 2016)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8년에 외국인 아내의 안정적 가족생활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을 목표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달기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 교육,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자녀양육, 각종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지났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외국인 아내의 생활 어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센터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들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을 조사한 실적보고서(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사업별 이용률을 보고한 다문화가족실태보고서(최운정 외, 20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연속성, 통합성과 센터 직원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김승일, 2019; 최새은 외, 2020) 등 이용 센터와 센터 종사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두 번째는 센터가 운영하는 단일 서비스 또는 센터 자체 이용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다. 즉, 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이나 방문 지원사업과 같은 단일 서비스의 필요성(박시균, 최은하, 2012; 한지은, 이계승, 2018),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경은, 박창제, 2009), 센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서지은, 최현미,

2012; 손병돈, 2014; 한지은, 이계승, 2018; Kim, 2013; Yoo et al., 2020) 등이다. 세 번째는 센터를 이용한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 이차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갖는 생활지원 효과나 사회통합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권태연, 2018; 김안나, 최승아, 2016; Hwang, 2016; Sung et al., 2013)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원서비스 이용이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효능감, 부부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혜원, 임춘희, 2012; 현경자, 2014; 현경자, 김정화, 2017)와 가족이 함께 하는 서비스가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이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김혜원, 임춘희, 2012; 현경자, 2014)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사회통합’ 등 복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변수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해석에 이용자 목소리가 미반영되어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운영성과를 고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선행연구들(공은숙, 2009; 김영옥, 2007; 유은주, 2013; 이성순, 2011; 이윤정, 2010)에서는 현재 지원사업이 외국인 아내의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등 외국인 아내의 모국문화를 무시하면서 한국의 주류 사회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다문화주의의 옷을 입은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려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목표를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자본이 부족한 외국인 아내가 현지 사회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자본의 생성 통로 역할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자녀양육, 가족 돌봄 등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서구의 이민자정책 연구(Graauw & Bloemraad, 2017; Hook & Glick, 2020; Shields et al., 2016)에 따르면, 현지사회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나 취업은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단이며 사회통합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즉, 외국인 아내의 ‘동화’ 수단으로 쉽게 언급되는 한국어교육,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 교육, 취업교육과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

담, 돌봄 서비스 등 가족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지원은 이들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역할은 외국인 아내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생활 안정과 사회적 자립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에 이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아내가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한 역할(Chung & Yoo, 2013), 생활영역별 서비스 이용 경험(김기화, 김영순, 2018) 등을 살펴본 연구가 외국인 아내의 센터 이용 동기와 과정 등 이용자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나 센터 사업이 장기적인 맥락에서 외국인 아내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들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센터를 장기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아내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이들의 관점에서 센터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뒤 경험하게 된 가족생활의 변화와 사회통합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와는 달리 센터 사업의 장기적 효과와 복합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 아내 중 중국인 아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아내는 외국인 아내의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부터 중국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기에(법무부, 2021) 다른 국적의 아내보다 다문화가족 역사에서 오래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국내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가 어떠한 개인 또는 문화적 특성을 가진 집단인지를 알기 힘들다. 중국인 아내에 대한 정보는 주로 90년대 초에 결혼중개를 통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족 아내에 편중되어 있다(강유진, 1999; 최금해, 2007). 현재의 다문화가족은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높고(통계청, 2019)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이나 결혼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최윤정 외, 2019). 개인을 둘러싼 문화적 특성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변화함으로써(Bronfenbrenner & Morris, 2006; Chuang et al., 2018)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 집단 안의 문화적 다양성을 예상할 수 있기에 연구주제에 대하여 여러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중국의 80, 90년대에 출생하고 성장한 ‘한 자녀정책’ 세대인 중국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대에 성장한 중국인 여성은 현재 30~40대로 아내, 엄마로서 한국인 가족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며 지식 습득 또는 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자녀’ 세대는 90년대 초 결혼중개를 통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외국인 아내와는 다른 문화적인 특성이 가지고 있다. 위계를 중시하는 가부장의식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 집단에 속하는 중국인 아내의 정착 경험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을 통하여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일어난 변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아내가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는가?** 중국인 아내는 중국과 한국간 사회문화적 충돌에서 초래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들이 삶의 장벽을 해소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있어 지원사업의 역할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중국인 아내의 관점으로 장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들의 삶의 장벽 해소,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등의 삶의 측면에서 외국인으로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 ‘한 자녀정책’ 세대인 중국인 아내의 특성

1990년대부터 시작하였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 역사를 보면, 중국 출신의 외국인 아내는 다른 국가 출신의 아내보다 가장 먼저 한국에 정착한 집단이다(김선희, 전영평, 2008; 김윤경, 이부미, 2019). 또한 그 수도 가장 많아서, 2011년에서 2021년까지 과거 10년 동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 혼인통계를 살펴본 결과(통계청, 2022)에 따르면, 중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매년 꾸준히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와의 혼인 건수는 2020년보다 각각 57.9%, 29.2%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중국인 아내와의 혼인 건수는 3.9%로 소폭 감소했다. 이를 보면 중국인 아내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이해할 때 중요한 연구참여자가 된다.

중국의 80, 90년대는 국가의 경제적 개혁, ‘한 자녀정책’, ‘남녀평등’ 등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발생한 주요한 시기이며 이 시대에 출생하고 성장한 세대가 현재 한국인의 아내, 엄마로서 한국 사회에서 삶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미래 세대에 자신의 이념과 문화를 전승하는 자로서 이들의 가족과 사회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인 인식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연구자들이 중국인의 양육, 성역할태도 등 부양행위와 가치관을 연구할 때 아직 집단주의와 유교적 구조의 영향에서 증거를 찾고 있다(Chuang et al., 2018). 중국의 ‘한 자녀’ 세대 여성들은 부모의 총애와 교육 투자를 집중적으로 받기에 학업성취, 사회성, 경쟁의식, 자아개발, 정신적 웰빙이 비외동 자녀(non-only children)보다 더 발달되었으며(Settles et al., 2013)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 배우자에 가족부양자로서의 전통적 성역할 이념을 선호하나 관계의 평등을 추구한다(Ji, 2015). 어머니가 되면 이들이 ‘좋은 어머니’ 규범을 스스로에게 요구한다. 즉,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육아 지식도 가져야 한다(박홍련, 2021). 이는 이 세대의 중국인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남자와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식은 힘이다(知识就是力量)”, “지식이 운명을 변화시킨다(知识改变命运)” 라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기에 생활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는 이들은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한 현황을 바꾸려 한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 사회환경 맥락에서 나타난 ‘한 자녀’ 세대인 한족 여성의 연구결과들(박홍련, 2021; Ji, 2015; Settles et al., 2013)인데 이를 외국 사회문화 환경과 작용하여 담론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가족맥락에서 중국인 아내의 삶을 조명한 연구는 예상외로 적은 편이다. 선행연구에서 ‘개인’ 으로서의 중국인 아내를 간과하는 경향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했으나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나라 출신의 아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어머니’ 등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연구하는 경향이다(김유진, 오성배, 2013; 김태영, 2014; 류진아, 2011; 이부미, 2016; 이수정, 김우리, 2016; 이은경, 2016). 이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및 교육적인 인식, 태도, 행동 등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공통적인 부분을 탐색하는 것에 주력했는데 이주여성 국가별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양육 인식과 행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들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주로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교와 소통의 무기력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연구경향은 어머니로서의 외국인 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최근 이민가족의 2세대 자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중국인 어머니를 포함한 외국인 부모의 교육참여(Xia et al.,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정옥희, 2013; Hou et al., 2016)가 자녀의 학업성취, 정서 발달(전자배, 2018) 등 아동·청소년의 발달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많으나 중국인 아내의 특성은 주로 관련 요인 중 하나로만 다루어진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이주여성인 중

국인 아내의 삶은 어머니 역할에만 집중되어 육아 외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 아내의 삶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인 아내의 외로운 정서와 양육의 어려움(정용균, 2019), 자기 삶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김윤경, 이부미, 2019)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호소(김기화, 김영순, 2018) 등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중국인 아내의 문화적 특성과 연결된 심층적인 분석이 부재한다. 사실 중국인 아내의 양육 어려움 및 취업 욕구는 10년 전의 연구(공수연, 양성은, 2014; 문성은, 방은령, 2012)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문성은과 방은령(2014)은 중국인 아내의 취업동기와 전력을 탐색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부인 취업교육은 이들의 유일한 취업전략으로 언급만 하였다.

한국내 중국인 아내의 취업 욕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사회적응 의지(김기화, 김영순, 2018)가 강하며, 이와 동시에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이들은 가족생활에서 남편과 시대 간의 의사결정, 육아 등의 충돌을 잘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의 불화가 조성된다(김윤경, 이부미, 2019; 덩징야, 진미정, 2018). 이러한 사회적응과 가족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이혼 건수 중에서 중국인 아내의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다(통계청, 2016, 2021). 중국 출신의 외국인 아내의 거주기간의 장기성과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사회통합과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는 중국인 아내의 이주 초기의 어려움과 욕구에만 머물러 있고 지원정책의 장기간 실행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삶의 어려움의 해결과정에서 지원정책의 역할, 또한 이주 초기와 비교했을 때 나타난 삶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한족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Sung et al., 2013)를 볼 때, 중국인 아내의 가족 가치관, 삶의 태도 등 중국인의 문화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위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의식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문화 맥락에서 근대 중국인 아내의 문화적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여 삶을 펼쳐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 지원

본 연구는 중국인 아내의 삶의 경험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결합하여 지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로 먼저 지원서비스의 정책적 목표와 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서구와 아시아 국가의 이민역사, 배경과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심의 차이로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권은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전문 공공 지원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있는 것과 달리 서구는 주로 지역서비스 기반으로 이민노동자, 난민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성미애, 2011; Hook & Glick, 2020; Yeung & Mu, 2020).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가 대부분 지역사회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지역대학교, 이민정착조직, 지역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한 언어교육, 취업교육, 육아교육, 공공문화시설 이용, 이민여성과 아동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상담, 1대1 멘토링(Graauw & Bloemraad, 2017; Selimos & George, 2018; Shields et al., 2016; Thomas et al., 2016) 등 서비스를 통해 이민자의 정착 및 통합을 지원한다. 통합서비스는 이민자 정착과정의 시작과 이주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및 지원(Shields et al., 2016)이며,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고 포용하며 주류사회에 통합하는 정책 및 과정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Kaushik & Drolet,

2018; Shields et al., 2016). 캐나다의 경우는 이민자 정착·통합서비스(Immigrant 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s)로 명칭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는 일반적으로 통합서비스(Immigrant Integration Services)로 부른다(Graauw & Bloemraad, 2017; Kaushik & Drolet, 2018; Shields et al., 2016).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권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정은 거주지역에 설치된 가족서비스센터(Family Service Centre)¹⁾를 통해 사회통합과 가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대만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배경, 유입 경로 및 삶의 어려움(Li & Yang, 2020) 등은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나 각 시·군에서 총 33개소의 신주민가족서비스센터(New Immigrant Family Service Center)를 설치하여 대만의 신주민(결혼이주여성) 및 그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정착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도 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정은 거주지역의 가족서비스센터(Family Service Centre)를 통해 정착과정에서 직면한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목표²⁾를 보면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사회통합과 가족생활 지원 두 가지 측면의 기능이 있다. 즉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만 강조하는 서구의 이민자 지원서비스보다 가족생활 지원정책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한국의 경우,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총괄부처 지위를 확보하고 다문화가족지원

1) IFI Network

<https://ifi.immigration.gov.tw/wSite/lp?ctNode=37695&CtUnit=19954&BaseDSD=7&mp=2#aC>

HKFWS <https://www.hkfws.org.hk/how-we-help/integrated-family-services>

Family Service Centre <https://www.awwa.org.sg/our-services/families/family-service-centre/>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law.go.kr)

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 내용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그의 자녀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한국어교육,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결혼이민자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교육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의 언급된 정책 내용의 전반부인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 및 직업, 한국어 등 교육서비스는 서구의 사회통합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하고 후반부인 가족관계의 유지와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등을 위한 지원은 가족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원정책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지원서비스의 형태로 전달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전문지원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14년 시작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사업 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전문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2014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2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196개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형)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31개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반형)로 분류한다. 2019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25개 센터는 모두 통합센터로 전환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형)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통합센터의 기본사업(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방문교육, 자녀의 언어발달, 통번역, 멘토링, 사례관리, 한국어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즉 통합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비다문화가족과 별도의 구분 없이 일반 가족지원 사업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10월13일부터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나(여성가족부, 2021) 다문화가족 전문 전달기관의 특성과 센터의 과

거 운영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칭하고자 한다.

3. 지원서비스가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1) 지원서비스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이민자의 사회정착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아시아 지역권에서 이민자의 적응문제를 위한 관련 서비스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Yoo et al., 2020)이며 서비스에 대한 기존 국내외의 연구는 주로 서비스의 이용실태, Gelberg-Andersen의 행동모델(behavioral model)로 센터 이용요인에 대한 분석, 이민자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집중하였다(서지은, 최현미, 2012; 손병돈, 2014; 한지은, 이계승, 2018; Critelli & Yalim, 2020; Dias et al., 2010; Higginbottom et al., 2015; Hook & Glick, 2020; Kaushik & Drolet, 2018; Kim, 2013; Neufeld et al., 2002; Roth & Grace, 2018; Selimos & George, 2018; Yoo et al., 2020). 서비스 이용이 이민자의 삶에 미친 영향 또는 일어난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서비스가 이용자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 두 영역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의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원서비스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 관련 성과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외국인 이용자의 사회통합 관련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다. 서구 선행연구에서 이민자는 이주로 인해 사회자본의 부족으로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취약집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이민자의 현지사회 언어능력, 정보의 획득능력, 취업능력 등 개인역량의 강화나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등의 사회자본 형성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지표(Kaushik & Drolet, 2018)로 간주하며 지역사회 기반한 서비스는 이

런 역할의 수행 여부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서구에서의 이민자정착지원기관(settlement agencies)은 이민자의 학업 문제 해결, 언어와 취업교육 제공 등 개인역량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George & Selimos, 2018). 동시에 현지에서 밀착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민족문화적 유대가 없는 이민자에게 서비스의 참여는 이들의 정착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지원서비스 이용 가능한 기관 자체는 현지사회가 이들에 환영함을 느낄 수 있는 주요한 ‘장’이 되었다(George et al., 2017).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 통합서비스 기관이 없는 국가인 경우, 지역사회 공공도서관과 지역대학교가 새로운 이민자에게 영어와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이민자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창구로 역할을 한다. 미국의 이민자가 공공도서관과 같은 지역 공공시설 이용할 때는 현지주민과 동등한 집단으로 한 곳에서 모일 수 있음을 감지(感知)했고 도서관은 외국인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의 영어, 미국문화 또는 모국문화에 대한 학습요구를 안전하고 편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Branyon, 2017; Thomas et al., 2016).

이민자들은 정착과정에서 사회환경의 변화, 새로운 문화 규범과 언어에 대한 적응, 취업기회 감소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사회차별 등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Kaushik & Drolet, 2018) 심리적인 위축을 느낄 수 있다. 이민자들의 자존감과 개인 정체성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기에 서구의 지역서비스는 이민자의 성취감과 자신감 등 개인역량의 재확인이 가능한 이중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들(Branyon, 2017; Szelényi & Chang, 2002)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민자가 문화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현지 문화를 습득하는 동시에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며 본인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점으로 인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높은 참여자 수와 인기프로그램이 되는 이유로 꼽혔다. 문화멘토링 프로그램(The Cultural Navigator Program)은 새로운 이민자에게 문화 및 지역정보의 획득을 지원하였기에 새로운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멘토링 역할로 장기거주 이민자에 사전교육의 진행을 통하

여 그들의 개인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Thomas et al., 2016). 새로운 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자본의 연결 역할을 하는 동시에 멘토링과 새로운 이민자 간 신뢰와 정서적 지지 유대를 생성하여 서로 간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Thomas et al., 2016).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서구의 연구에서 공공시설은 이민자에게 평등과 안정적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 이민자가 현지 언어를 습득과 개인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식을 형성과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를 생성하였다. 아울러 이민자와 현지 사회자본의 연결과정에서 서비스 기관은 핵심적인 노드 역할(Selimos & George, 2018)을 하고 있다 등 사회통합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장기간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사회통합의 결과도 시간을 두고 살펴 보아야 한다. 앞의 논의하였던 연구와 같이 이민자 지원서비스가 개인역량 향상과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을 밝혔지만, 서구의 서비스는 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서비스라(Critelli & Yalim, 2020; George & Selimos, 2018) 서비스가 개인역량과 사회자본에 가진 장기적 성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서구의 이민자 지원서비스는 주로 사회통합만 초점을 두었기에 가족생활 지원에 관련 연구결과를 찾기 힘들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문 전달기관으로써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체험 등 사회적응 교육, 다문화강사 양성, 바리스타, 취업준비 등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서구의 각종 공공시설을 통해 이민자에게 분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다. 이에 주로 질적 연구로 통합서비스의 성과를 고찰한 서구연구와 달리 국내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용 여부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개인역량 향상 여부와 가족생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설문조사를 한 연구(김안나, 최승

아, 2016)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 대인관계, 정치사회 역량 등 척도로 측정된 임파워먼트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이주여성의 개인역량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역량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2012년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적취득, 취업 여부, 한국어능력 등 문항을 사회통합의 결과물로 서비스 이용 효과를 측정한 연구(Hwang, 2016)에서는 데이터를 성향점수매칭 후 결과물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각 사회통합 지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공통된 문제점은 형태와 종류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이용경험 여부’로 통합하여 묶은 것이다. 사회통합도 다양한 측정지표로 구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 ‘취업여부’ 또는 한국어능력 등 몇 개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센터 이용과의 선후 순서의 확인이 힘든 상황으로 통합성과를 검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변수 간의 시간 순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에 한국어와 정보획득 등의 개인능력과 서비스 이용 간의 선후 순서 또는 양자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국어를 잘하면(서지은, 최현미, 2012; Kim, 2013)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 이와 상반된 결과도 있었다(손병돈, 2014; Yoo et al., 2020). 외국인 아내가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능력이 낮고 한국어교육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더 높기에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해석이 있는 반면(손병돈, 2014) 거주기간과 한국어능력 모두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 서비스 이용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결과(Kim, 2013)에 대한 해석은 한국어는 외국인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개인능력이기 때문에(손병돈, 2014; Yoo et al., 2020) 외국인 아내의 양호한 한국어능력은 서비스의 이용에 접근하는 중요한 수단이다(Kim, 2013)는 의견도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개인역량은 지원서비스 이용의 진입조건인지 아니면 서비스 이용 후의 결과인지 또는 이 양자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 관점으로 본 질적 연구를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구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성과는 주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주목하였고,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지역권은 외국인 아내를 위한 가족서비스센터가 있으나 센터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학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Wu와 Chow(2013)에서 홍콩의 결혼이주여성이 통합가족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외국인 아내의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는 외국연구에서 지원서비스가 이민자의 가족지원 성과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는 서구의 이민자 통합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에 내포된 가족정책적 특성이며 서비스 이용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른 국가보다 자료를 찾기 수월한 편이다.

2) 지원서비스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Bogenscheider(2014)는 가족영향렌즈(family impact lens)라는 용어로 가족정책 평가의 관점을 설명하였다. 즉 한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서비스 이용이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이들과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결혼생활 안정감과 효능감, 자녀의 양육과 학교적응 등으로 연구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둔 외국인 어머니와 초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부모교육 방문서비스의 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한 연구결과는 임신·신생아기와 아동기에서 어머니의 부모교육 방문서비스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초등학생 자녀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 잘하는 것이며, 부모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성장 영역의 도움 정도는 자녀의 교우관계 적응과 정적 관계, 부모자녀관계 증진의 도움 정도는 자녀의 학교규칙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에

영양 및 건강지도, 생활지도 또는 입학준비 등 내용이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정, 이봉민, 2015). 이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성장과 부모자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음식 및 생활지도 같은 내용보다 다문화가족에 더욱 실질적 지원 효과가 있었다.

센터 서비스 참여는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혜원, 임춘희, 2012)에서는 군산시에 거주 중인 105명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조사결과,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하위요인 중 프로그램의 참여횟수와 참여만족도는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효능감과 관계가 없었고,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한국어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높을수록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높아졌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만족도보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줬다. 2008년에 558명 외국인 아내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관계와 결혼안정감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현경자, 2014)에서는 사업이용이 외국인 아내들이 보고된 가족 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긍정적인 변화와 정적 관계가 있었고, 그런 변화는 부부갈등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측정된 결혼안녕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과 직접 정적 관계가 있다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 (현경자, 2014)한다. 현경자와 김정화(2017)의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인 경제 곤란과 문화 도전은 지원서비스 이용과의 상호작용이 부부 각자의 우울과 공격적 갈등 반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도 나타났다. 지원서비스의 이용 수(數)는 다문화가족 부부 각자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곤란 수준이 높을 때에는 서비스 이용기간이 긴 집단에서 이용기간이 짧은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원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부갈등의 요소들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연구참여자의 직접 목소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비교적 명확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으로 지금까지 고찰된 연구들을 보면, 센터 사업의 운영성과에 초점을 둔 것보다 대부분 연구는 외국인 아내의 한국 삶의 여러 영향요인 중 센터 서비스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삶의 질 향상’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부 목표로 법적인 명시가 되어있기에 기존의 연구들은 지원정책의 목표에 따라 삶의 질을 고찰할 때 사용 가능한 하나의 지표로 생활만족도를 사회통합의 성과로 검증하거나(Hwang, 2016) 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의 관계성을 탐색하는(정유리, 2014) 경우 등이 있다.

서비스의 이용을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계량적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개인, 가족, 지역과 사회 등 체계에서 외국인 아내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Sung et al., 2013)에서 지원서비스 이용은 지역 체계의 하위요인으로 중국 한족만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조선족,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었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똑같이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한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결과는 지원서비스의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권태연, 2018). 앞에서 두 연구가 모두 생태학적 관점으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에 적용한 연구인데 연구결과가 차이가 있게 나타난 점에 대해 앞선 두 연구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권태연(2018)은 센터의 이용률이 낮거나 이주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추측하였고 Sung et al.(2013)은 한족여성이 익숙하였던 ‘전통적 부계중심 가치’를 담은 지원서비스는 유용하다는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신념은 서비스가 전달하는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이용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로 도출된

추론은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추가할 수 있다면 결과확인 및 해석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양적 연구도 있었지만(김안나, 최승아, 2016; 정유리, 2014), 사실은 생활만족도는 외국인 아내의 한 시점의 생활상태인데 서비스 이용의 전과 후의 두 시점에서 측정한 생활만족도 차이가 아니므로 연구참여자와 분석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센터의 이용 성과에 대한 단순한 통계적 관계로 인해 단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서비스 이용은 외국인 아내의 현재 생활만족도와 같은 삶의 질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관된 계량적 분석결과를 얻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가 횡단적 자료에 기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데이터를 수집 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더불어 지원사업의 전반적 성과를 고찰하려면 연구참여자 조사 당시의 삶의 상태보다 삶의 질의 변화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Martin & Kettner, 1996; Patti, 1987). 삶의 질의 변화는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과정’ 이기에 하나의 추상적인 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는 지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을 통해 외국인 아내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을 심층적으로 밝힌 연구는 드물었다. 주로 여성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는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외국인 아내들의 현지사회 삶에 관심을 두었기에 센터의 자조모임, 통번역사 등 특정 프로그램이 여성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을 뿐, 센터사업이 외국인 아내의 사회통합 성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니었다. 외국인 아내를 통번역사로 운영한 통번역 서비스는 이용자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외국인 통번역사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새로운 이민자에 사회통합과정의 롤모델이 되며 통번역사의 경력을 기반으로 본인의 취업기회도 넓혀진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16)가 있으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내의 센터의 자조모임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원래 개인의 상태로 존재하던 이들을 공적인 자리에 한데 모이게 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공통의 문제의식과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적 집단

임을 확인시키고 집단적인 비판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민가영, 2011). 중국인 아내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요리교실 또는 자녀 교육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종사자에게 가정 문제 등을 같이 얘기함을 통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므로 종사자가 본인에게 정서적인 지지자, 정보 제공자, 한국어와 문화를 알려주는 교육자 등의 다양한 역할 수행하는 것을 언급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 사례가 있었다(김기화, 김영순, 2018). 앞선 연구에서 지원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외국인 아내에 대한 동화주의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김기화, 김영순, 2018; 민가영, 2011)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논거 제시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Chung과 Yoo(2013)는 스트레스 모델을 기본 분석 틀로 하여 외국인 아내의 초기 스트레스 해소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하였으나 외국인 아내 집단 내부의 다양성과 이들의 정착 장기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목소리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기, 이용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 등 일련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4. 이용자 관점의 지원서비스 연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는 일종의 휴먼서비스로, 휴먼서비스의 의도된 결과(outcomes)는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의 삶의 질의 변화로써 이용자 중심(client focus)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Martin & Kettner, 1996). 특히 정책운영 성과를 검토 시 일반적으로 효율성 관점(the efficiency perspective), 품질 관점(the quality perspective)과 효과성 관점(the effectiveness perspective) 등 3가지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은 휴먼서비스의 가장 높은 형태의 운영성으로 관리자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Martin & Kettner, 1996; Patti, 1987).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의 주

요 사업이며, 서비스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자원의 획득,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또는 직원의 업무만족이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서비스를 통해 인간과 그들이 사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Patti, 198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운영성과 연구에 그치는데 한계점이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용자의 사업 참여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실적보고서, 사업별 이용률을 보고한 다문화가족실태보고서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연속성, 통합성과 센터 직원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김승일, 2019; 최새은 외, 2020) 등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나타낸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는 서비스가 달성된 성과가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관점으로 서비스 이용이 다문화가족에게 가져온 영향과 삶의 질의 변화를 검증한 성과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태훈과 배성훈(2020)은 200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여 추출된 총 15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 연구들의 제목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다문화’, ‘종사자’, ‘서비스’가 출현빈도에 있어 3위권 안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와 서비스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연구가 다소 종사자의 관점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 관점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선정할 때 서비스 이용 기간이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인지 등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하여 이용자가 과거 이용하였던 특정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언급하였거나(김기화, 김영순, 2018; 김윤경, 이부미, 2019) 한국어교육 참여경험만 있는 다문화가족이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의견을 참조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 평가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문성은, 방은령, 2012).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장기적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살펴본 중국인 아내의 삶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연구는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및 외국인 아내의 삶의 변화하는 과정과 이들의 특성을 파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내는 2000년대 초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장기체류 단계로 전이하고 있으며(최윤정 외, 2019) 10년 정도의 거주기간을 걸친 외국인 아내의 경우 정착 초기보다 현 단계의 삶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더불어 십몇 년 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기에 오늘날 이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에 있어 서비스의 장기적 이용을 통해 가져오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그동안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정책적인 실증연구도 이에 발을 맞추어 가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과 이용자의 삶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를 파악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과 모집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질적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적 변화는 일정 기간을 지나야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센터 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³⁾을 보면 한국어교육인 경우 1년 단위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교육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교육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최소 2년이 지나야 서비스의 이용자로 간주한다. 둘째, 한국어교육 등 단일 서비스의 효과보다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교육 이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 지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센터 이용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국어교육 이외에도 다른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한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에서 삶을 펼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적응과정과 센터 이용 경험에 초점에 두기에 다문화가족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인천, 경기(통계청, 2019) 등 수도권으로 제한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참여자를 중국인 커뮤니티와 지인의 소개를

3) <https://dchfc.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22C324/receipt/view.do?seq=116890>

통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모집하였으며, 삶의 어려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센터 이용자 14명 중국인 아내를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2021년 7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IRB No. 2107/002-001)을 받은 후에 즉시 연구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에 잘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초기 모집은 중국 지인이 추천하는 중국인 이주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참여자 모집설명문을 중국어로 게재하였다. 동시에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서울시에 소재한 16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집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모집설명문에서 연구자의 전화번호와 중국 SNS (Wechat) 개인 ID를 모두 기재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모집설명문을 보고 먼저 연구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집설명문을 게재한 후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이 자발적으로 연구자에 연락하여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연구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며 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의도적 표집 방식으로 일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처음 설명문을 게재하였던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은 모집 소식이 다른 중국인 커뮤니티에 전달되어 설명문을 보고 주변 친구에게 알리는 눈덩이 표집으로 일정 수의 연구참여자를 짧은 기간 안에 확보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메일을 받은 한 센터의 중국인 통번역사가 연구자에 연락하여 개인적인 네트워크 중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중국인 아내 몇 명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받은 연락처로 이들과 통화를 하여 참여 의사와 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모집과정을 통하여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다양하게 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아내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2021년 8월부터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시작하였다. 심층면

접을 진행하면서 자료 수집이 포화할 때까지 연구참여자의 소개로 연구와 부합된 센터 이용자 4명을 추가 모집하였다. 이렇게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 14명을 모집하였다.

14명의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네 달 동안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Zoom의 비대면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시간을 약속하고 나서 연구참여자에게 IRB의 승인된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 중국어과 한국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내용, 면접 시간 등 설명된 내용문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를 수령 후에 심층면접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참여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14명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연령, 거주기간, 결혼기간, 가족의 연령 등 면접 당시 2021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주로 30대 초중반과 40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7세이며 한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6세이었다. 남편과의 나이 차는 10세 이상인 경우가 5명, 8~9세인 경우가 5명이었다. 결혼기간과 거주기간은 결혼경로에 따라 차이가 보이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9명이었다. 한국에 먼저 와서 유학 시절을 보냈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4명의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인 경우가 3명, 나머지 한 명은 10년이였다.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연애결혼한 연구참여자인 경우는 대부분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일정 기간을 보낸 후 남편과 자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기에 한국의 거주기간이 결혼기간보다 짧은 경향이 있었다. 지인 소개로 결혼한 경우는 결혼기간과 거주기간은 일치하였다. 14명 연구참여자 중 1명의 조선족 이외에는 모두 한족이었

다. 한 명 조선족 참여자의 친정어머니는 한족이며 한족학교에 다니기에 한국에 입국 당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한국 체류 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는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 바로 귀화를 하였고 다른 연구참여자는 귀화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14명 연구참여자는 모두 자녀가 있으며 자녀 2명이 있는 참여자는 9명, 자녀 한 명만 양육하는 참여자는 5명이었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추가로 아이를 낳을 계획은 더 이상 없다고 하였다. 대부분 연구참여자의 직업특성은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 중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다문화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명과 다문화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는 1명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참여자의 직업상태는 불안정하였다. 면접 당시 대부분은 한국 화장품, 옷, 사치품을 구매한 후 중국에 보내는 방식으로 시간제 일을 하고 있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른 고용복지센터의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제 일이나 직업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연구참여자의 남편은 대부분 직업이 있는 상태이었다. 1명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한 상태였으며, 1명은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하여 부부가 장거리 별거 생활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연구참여자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면접 당시 시댁과 동거하는 경우가 4명이었으나 대부분 연구참여자가 입국 초기에 시댁과 함께 몇 년을 지낸 후에 핵가족으로 독립하는 거주경험이 있었다.

(2) 센터 서비스 이용 특성

연구참여자가 공공 기관을 이용하는 특성은 <표 2>와 같다. 자발적으로 연구를 참여한 참여자는 주로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기에 이들은 서울, 인천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이다.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센터를 장기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울의 지역구 센터를 몇 개 이용하는 3명의 연구참여자

인 경우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거주하는 지역구에서 제공하지 않아 다른 지역구에 찾아가서 이용하였다. 이 중 2명은 원래 교육, 생활 정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다른 기관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천의 지역구 센터를 이용하는 연구참여자 중 1명은 센터의 중국어통번역사 직원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이용자로서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나머지 1명은 이사 때문에 여러 지역구 센터를 이용하였다.

14명의 연구참여자 중 한국유학 경험이 있는 4명을 제외한 다른 연구참여자는 모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처음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표 2>의 ‘서비스’ 란에서 한국어교육이 맨 앞에 기재된 참여자들은 처음에 한국어교육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중국인 아내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자녀 관련 서비스, 개인 취미활동, 취업교육, 부모교육, 가족 활동 등을 모두 이용하였다. 중국 출신의 연구참여자는 취업에 관심이 많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함과 동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각종 복지센터의 취업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었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목표와 연관성이 있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이름(가명)	본인 연령	남편 연령	결혼 기간	거주 기간	결혼경로	민족	비자	본인직업	남편직업	자녀특성	시댁과 동거 경험
01	티안웨이	32세	36세	8년	14년	연애 (한국 유학)	한족	영주	시간제 (다문화강사)	회사원	1남(4세)	비동거
02	왕진진	34세	45세	8년	13년	연애 (한국 유학)	한족	영주	시간제 (데이터표시)	개인 사업	1녀(6세) 1남(3세)	비동거
03	황친	31세	40세	6년	10년	연애 (한국 유학)	한족	영주	시간제 (한국직구)	가족 사업	1남(5세)	동거(시부모, 6년)
04	류효연	36세	45세	10년	12년	연애 (한국 유학)	한족	영주	시간제 (바리스타, 다문화강사)	회사원	1남(9세) 1녀(6세)	비동거
05	장영진	35세	43세	6년	5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결혼이민	주부	실업 (시간제)	1녀(5세) 1남(3세)	비동거 (시부모 없음)
06	진란	38세	50세	10년	6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결혼이민	시간제 (한국직구, 화장품판매)	회사원	1남(9세)	동거 (시어머니, 5년) 비동거(현재)
07	닝산산	39세	45세	15년	12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영주	시간제 (한국직구)	회사원	2남(14세, 11세)	동거 (시어머니, 시누이, 12년)
08	조춘설	36세	37세	6년	6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결혼이민	주부	회사원	1남(5세) 1녀(4개월)	비동거
09	리아홍	46세	52세	18년	6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결혼이민	직원 (소기업 사무직)	개인 사업	1녀(16세)	동거(시누이 2명)
10	정채경	36세	50세	14년	14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귀화	직원 (차전문화회사)	회사원	1남(13세) 1녀(10세)	동거(시부모, 5년) 비동거(현재)
11	양옌옌	42세	56세	13년	13년	소개	한족	귀화	자영업	자영업	1녀(12세) 1남(9세)	동거(시부모)
12	최빙빙	39세	47세	15년	15년	소개	조선족	귀화	직원 (다문화사회적기업)	자영업	1녀(14세) 1남(7세)	동거 (시어머니, 4년) 동거 (현재, 친정부모)

13	우춘련	44세	50세	18	12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영주	센터 직원 (통역사)	회사원 (중국)	2남(17세, 13세)	동거 (시어머니, 남편의 형 가족, 7년) 비동거(현재)
14	마오단	34세	48세	4년	4년	연애 (인터넷채팅)	한족	결혼이민	시간제 인턴 (의료통역)	건설 현장직	1남(2세)	동거(시부모, 2년) 비동거(현재)

주) 모든 연령, 기간은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함

<표 2> 연구참여자의 센터 이용 특성

번호	이름(가명)	연령	센터	기간	서비스	기타 기관(기간)
01	티안웨이	32세	서울 A구	2년 6개월	자녀언어발달, 이중언어, 다문화이해교육, 외국인봉사단, 수공예 수업	여성인력개발센터(6개월)
02	왕진진	34세	서울 B구	5년	자녀가정방문지도교육, ITQ Excel자격증, 다문화강사양성과정, 수공예 수업, 취업박람회	고용복지지원센터(10개월) 여성인력개발센터(3개월)
03	황진	31세	서울 E구	6년	부모교육, 부부교육, 한국어교육, 바리스타, 요리수업, 자조모임, 가족여행	무
04	류효연	36세	서울 E구	6년	부부교육, 한국어교육, 통번역과정, 다문화강사양성과정, 취업교육, 바리스타, 다문화자녀에 관련 각종 활동, 자녀취미활동, 가족여행	무
05	장영진	35세	서울 C구	5년	한국어교육, 부모방문교육, 부부교육, 다문화강사양성과정, 의료통번역과정, 이중언어, 요리수업, 수공예수업, 각종 행사	외국인노동자센터(5개월)
06	진란	38세	서울 D구	5년 9개월	한국어교육, 부모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자녀가정방문지도교육, 자조모임(전통무용), 외국인봉사단, 리더십교육, 바리스타, 요리수업, 자녀취미활동, 각종 행사	무
07	닝산산	39세	서울 C구	13년	한국어교육, 부모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취업지도교육, 문화체험, 수공예수업, 가족여행	OO지구촌(6개월) 외국인노동자센터(3개월)
08	조춘설	36세	서울 F구	3년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부모교육, 가족텃밭체험, 수공예수업, 요가수업	무
09	리아홍	46세	서울 D구 (6년) C구 (6년) H구 (6년)	6년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바리스타, 수납정리, 가족봉사, 각종 체험활동	A외국인노동자센터(3년) B외국인노동자센터(1년) 글로벌빌리지센터
10	정채경	36세	서울 H구 (5년) J구 (5년)	10년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요리수업, 취업교육, 자녀취미활동, 각종 체험활동	A종합복지관(5년) B종합복지관(5년)
11	양연연	42세	서울 D구 (12년) G구 (2년)	12년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부모교육, 요리수업, 꽃꽂이, 각종 체험활동	외국인노동자센터(3년)
12	최빙빙	39세	서울 A구	12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아동입학전교육, 청소년 성교육, 아동심리상담, 청소년기 아동 대화법, 각종 모임, 취업교육, 자녀취미활동, 가족활동	외국인노동자센터(10년)

13	우춘련	44세	인천	A구 B구 (직장)	8년	한국어교육, 자녀가정방문지도교육, 자녀멘토링, 아동야구단, 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년)
14	마오단	34세	인천	C구 (2년) A구 (1년) D구 (6개월)	3년 6개월	한국어교육, 부모방문교육, 통번역과정, 요리수업, 이중언어	구청(18개월)

주) 처음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목적이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서비스 란에서 ‘한국어교육’ 으로 시작하여 기재된 지역구 센터는 영어 대문자로 표시하되 서울시와 인천시에 소재한 센터는 같은 영어 대문자로 표시하였으나 다른 센터임

2. 자료 수집

중국인 아내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가 가져온 삶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연구참여자에게 일대일 심층면접(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개인적 감정, 의견,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질적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Milena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삶, 센터 이용을 통해 한 삶의 변화 등의 주제를 중국인 아내의 관점으로 심층적인 해석 및 이야기가 필요하기에 심층면접은 본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이다.

심층면접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방형 면접 질문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깊이 있는 견해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사전 질문을 준비하나,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조정하여 연구참여자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모국어로 편안하게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을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역동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다.

1차 심층면접 완료 후에는 면접 현장에서 파악한 연구참여자의 반응, 이야기와 연구자의 생각을 연구노트에 작성하여 분석시 추가적 자료로 활용했다. 그리고 면접자료를 수집하는 데 수정된 질문을 적용 및 검증의 과정을 걸쳐 효율적인 면접 질문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가장 완전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소모 질문(throwaway questions), 필수 질문(essential questions), 부가 질문(extra questions), 탐색 질문(probing questions) (Lune & Berg, 2017)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심층면접 질문의 영역은 ‘삶의 경험’과 ‘센터 이용 경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경험’의 필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현재는 안정이 되었나요?
- 2)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나요?
- 3)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삶은 어떤 것인가요?
- 4)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5) 안정적인 가족생활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 6) 한국 사회에 진정으로 녹아들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센터 이용 경험’의 필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처음에 센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나요?
- 2) 어떤 이유에서 센터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게 되었나요?
- 3)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었나요?
- 4)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 5)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할 데 도움이 되었나요?
- 6) 당신의 삶에서 센터는 어떠한 의미를 갖나요?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접은 2회로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면접에서 ‘센터 이용 경험’보다 ‘삶의 경험’ 영역에 관련한 질문 위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에는 바로 녹취록 전사 작업을 시작하며 두 번째 심층면접이 시작하기 전에 완성하였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정리된 첫 번째 면접 내용에서 더 심층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적인 질문을 진행한 후 ‘센터 이용 경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연구주제에 관련 이야기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자가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참여자의 이야기에 공감과 이해함을 표시하여 편한 상호작용 속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1회 면접 시간

을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의 성향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연구자와 단기간 안에 라포를 형성하였기에 2시간의 면접 시간이 알차게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Zoom의 녹화기능으로 기록하였다. 녹화된 영상자료를 보면서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다시 관찰과 회상을 통해 전사 작업을 하였다. 자료 수집의 모든 과정은 서울대학교 IRB로부터 받은 승인을 엄수하여 진행하였다.

3. 분석방법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에서 얻은 14명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꼼꼼하게 전사한 녹취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경험이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자료 안에 있는 주제를 식별 및 분석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주제분석법의 주된 목표는 연구참여자가 특정한 연구 질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Guest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아내의 한국 삶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며 센터 이용이 이들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설명하고 이해하려 한 연구목표를 위해 주제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Maxqda(20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uest 외(2012)의 주제와 코딩 분석방법에 따라 내용코딩(content coding)과 구조코딩(structural cod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핵심 면접 질문을 이용하여 분석 틀을 구축한 후에 미시분석 기법(open coding)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문장, 단락 등을 분석단위로 뽑아내 라벨을 붙였으며 개념을 정의하였다(concept definition). 자료를 읽으면서 비슷한 내용과 차원을 가진 분석단위들을 분석 틀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분류하며 새로운 분석단위가 나오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였다. 추가되는 면접자료로부터 계속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코드를 추

가 또는 교정하는 일차 범주화 과정을 거쳐(서은영 외, 2008) 주제(themes)를 발견할 수 있는 구조적 코딩북(structural coding book)을 생성하였다. 이차분석에서는 코딩북의 범주 항목 간의 관계, 연결점 등을 고려하여 하위주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하위주제를 반복해서 비교하면서 주제의 빈도 등 가시화 도표를 보조 도구로 사용하여 중심주제(central themes)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제분석 과정을 거쳐 도출된 중심주제는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센터 이용’,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한 바람’ 등 두 가지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심주제, 하위주제, 핵심개념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4. 자료의 신뢰도

본 연구는 앞에서는 언급하였듯이 연구참여자의 한국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센터 이용 후 변화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연구참여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중국어로 진행된 심층면접 내용을 의미 손상 없이 번역한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⁴⁾을 취득한 연구자 본인이 Google 번역과 papago 번역 도구를 활용하여 일차 번역하였다. 일차 번역문은 유학경력이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전문가에게 교정작업을 거쳤다. 다음 이차 번역본을 토대로 중국어교육을 전공한 전문가와 함께 문구 하나 하나를 일대일로 대조하면서 연구참여자가 말하고자 한 의미나 표현하고자 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고 최종 번역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4) 6급은 TOPIK의 최고급이다.

<표 3> 면접자료의 범주화

중심주제	하위주제	핵심개념
1.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센터 이용	답답한 가족생활의 탈출구 찾기	다정하고 가족 부양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남편을 원함 실제는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남편 시댁의 도구적, 금전적 지원을 원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함 함께 거주하기에 시댁과 거리를 두지 못함 부부 사이에서 시부모의 안 좋은 역할 ----- 센터는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안식처
	가족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문화 습득	한국의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과 잘 살기 위한 의지 한국어, 문화차이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 일 처리가 겁남 ----- 센터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배우는 기회 제공 학원의 한국어교육과 센터 교육의 비교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 필요한 문화 지식의 습득 기회 외로움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
	양육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과 센터의 종합적 정보 제공	자녀는 삶의 여러 의미를 부여함 자녀의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 자녀를 위해 가족생활, 사회통합에 노력 ----- 남편의 양육 참여에 대한 기대와 불만 자녀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교육 정보 등의 부족 교육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인 엄마와 친분 쌓기 센터는 전문적, 종합적 육아 정보 제공이 가능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개인역량 강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망 일은 독립적으로 사는 성취감, 부부관계 평등, ----- 자녀학습의 질 향상, 사회 접촉 등 의미를 부여함 센터는 취업 준비,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지원처 센터와 다른 지원시설의 차별점
	다문화가족의 생활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삶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대처할 때 도움이 필요 ----- 한국 사회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야 함 ----- 무료로 각종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교육 제공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센터의 노력

중심주제	하위주제	핵심개념
2.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 한 바람	양육에 도움을 받았으나,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함	<p>자녀학습 방문교육과 학습지도 부담 경감</p> <p>이중언어 혼용으로 자녀 언어 지체 요인이라는 의심 해소</p> <p>언어 지체 아이의 언어발달 치료 이용 및 효과</p> <p>부모교육을 통해 육아 인식의 변화 및 자녀와 공동 성장</p> <p>연극단, 합창단, 멘토 등을 통해 아이의 취미와 자신감 양성</p> <p>교육형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보다 체험활동 선호</p> <p>자녀발달에 따른 고학년 자녀의 사춘기 교육, 진학 진로 등 관련 서비스 필요</p>
	가족관계 좋아졌으나, 아내의 일방적 조절	<p>센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좋은 기분으로 귀가하여 가족관계에 도움이 됨</p> <p>센터에서 다른 다문화가족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본인의 가족 생활에 도움이 됨</p> <p>가족행사를 통해 시어머니와의 관계 증진</p> <p>정기적 가족활동을 통해 가족 응집력, 부부 친밀감 증진</p> <p>부부상담, 부부교육 등을 이용했으나 아내에게 일방적 수용</p>
	초기 어려움을 해결했으나, 심화 서비스 필요	<p>한국어,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을 통해 초기 삶의 불안 해소</p> <p>한국어, 한국문화를 습득하여 가족과의 이해, 사회와의 접촉 에 도움이 됨</p> <p>모든 서비스의 취지가 좋으나 기초지식 위주로 제공</p> <p>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 필요</p> <p>더욱 심층적인 지식과 체계화된 원스톱 서비스 원함</p>
	정서와 정보 지원, 중국인 네트워크 내에서만 가능	<p>센터를 통해 모국 친구와 사귀면서 정보와 정서 교환</p> <p>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국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p> <p>센터를 통합했으나 한국인 이용자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음</p> <p>코로나19로 인해 전환된 온라인 수업은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못함</p>
	사회통합을 위한 센터의 중간 역할	<p>직업교육(바리스타, 다문화강사, 통번역)을 통해 개인 성향에 맞는 일을 발견</p> <p>취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역량과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 성공</p> <p>장기거주자로서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얻은 개인 성취감</p> <p>재능개발, 자격증 교육 등 확대에 대한 갈망</p> <p>다른 기관의 개인 개발, 취업 관련 정보 전달 및 연결</p>

제 4 장 연구 결과

제1절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센터 이용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국 ‘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30~40대 중국인 여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한 외동딸로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공유하였고 사회적 경쟁의식을 가지는 세대이다. 연구참여자의 한국에서의 삶을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을 때 전통과 근대적 의식이 포함된 이중적 성역할 태도가 작동함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에서는 전통적 좋은 어머니 규범을 스스로 요구하여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면서 남편과 자녀로 구성된 소가족의 안정을 추구한다. 동시에 사회생활에서는 자아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은 엄마,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얻는 가족생활의 행복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었다. 즉 “외국에서 돈도 벌고, 가족도 챙길 수 있다(진란)” 면 연구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인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다양한 결핍과 한중 양국의 문화, 사회상황 차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는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변의 지원이 필요하나 정작 남편과 시댁은 중국 사회에서의 친족과 달리 도움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순탄하지 않은 육아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더불어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려면 높은 개인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사회적 기준을 연구참여자가 인지하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어린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개인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지를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의식적 차원에서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행동에서는 전통적인 특성을 보이는(딩징야, 진미정, 2018) ‘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는 개인 가치의 실현에 대한 강한 갈망과 자녀양육의 책임감과의 갈등 속에서 양자의 균형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사회적 자원을 찾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성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누렸으며,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지식 습득을 격려하는(Settles et al., 2013) 사회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지식이 삶을 변화시킨다(知识改变生活, 류효연)” 라는 신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문화, 기능, 사회정책, 정보 등 일련의 지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찾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과정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1. 답답한 가족생활의 탈출구 찾기

가족생활은 연구참여자의 한국 삶의 기반이다. 연구참여자의 결혼 경로는 다를 수 있으나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남편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의미한다. 핵가족의 화목한 관계를 영위하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 친정과 사회적 지지망을 뒤로하고 뿌리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바로 시작하는 결혼 초기에 연구참여자는 남편을 버팀목이라고 표현하였다. 남편은 연구참여자가 한국에서 삶을 펼칠 수 있는 불가분의 존재이며, 부부관계가 좋다는 것은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주요한 전제이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부양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만

약 남편이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외국 생활의 힘든 점을 이해해 주면서 가족 부양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연구참여자의 이상적인 남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한국인 남편 중 대부분은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면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드러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우리(자녀를 포함)는 다 문 앞에 가서 마중해야 해요(류효연)”, “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엄마(시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진란)” 등의 진술은 이들이 인지한 남편의 권위적인 행동과 원가족과 분리되지 못한 면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마음속에 많은 불평이 있으나 남편의 수입으로 가정지출에 대하여 큰 걱정이 없이 감당할 수 있기에 연구참여자는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들을 인내하며 사는 태도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가족 부양자 역할 수행과 이로 얻은 경제적 안정감은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 경제적 수입이 없는 연구참여자에게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의 가부장 의식으로 인해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시댁과의 거주경험은 가족생활의 답답함을 더 크게 초래하였다. 심지어 시댁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이들이 인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항상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본인들이 가진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위적인 시부모보다 자신을 며느리로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시부모의 모습을 기대하였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삶의 현실과 중국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시댁으로부터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물론 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댁이 이들의 육아에 있어서 중국 부모만큼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다. 한국의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인근 지역 또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지 않는 점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기를 이미 지낸 연구참여자들

조차도 많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들(한국)은 원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지 않는 문화예요. 우리 중국 부모들에게 아이를 봐주는 것은 일상적인 의무이기에 비교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불공평하고 분해요. 물론 이것이 이 나라의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게 돼요. 한국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병원에 잠깐 방문하는 것조차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막 육아를 시작했던 그 시절이었고 그때의 감정은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우춘련)

시댁에서 금전이나 도구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속상한 감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부모가 중국인 며느리를 경시하고, 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이주 초기에는 경제적 이유로 시댁과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친밀한 고부사이를 통하여 정서적 지지를 기대했던 연구참여자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 삶을 편하게 지내려면 시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시댁과 불편한 거주경험을 한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그동안 이러한 거주형태로 인하여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 제가 한국말이 부족하였을 때,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한 지인을 만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손가락으로 “씻” 하는 동작 표시) 저한테 “씻” , 저한테 이렇게 “씻” 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내 아들이 한국에서 아내를 못 찾으니까 외국 여자를 만나 결혼한 것’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외국 며느리가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진란)

진란 씨는 결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와 함께 5년 동안 거주했다가 일년 전에 분가하고 현재 자신의 소가족과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서 반월세로 살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없어 기분이 편하다고 하였다. 분가

전후의 경험을 통해 진란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진란 씨가 한국 생활을 잘 지내기 위해 시댁과 함께 살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부분 연구참여자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이다.

시댁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상을 가진 시부모가 한국인 남편인 아들을 지나치게 아껴서 부부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남편과 중국에서 만나 연애 결혼한 진란 씨와 정채경 씨는 중국 생활을 했을 때 가사분담을 잘하던 남편이 한국에 와서 시어머니의 돌봄 하에 다시 아무 일 하지 않은 가부장적인 왕자님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절대 시부모와 함께 살지 마라. (...) 저는 시어머니랑 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러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어 저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매우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기만 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방에 들어갔어요. 제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다 그랬어요.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사는 동안, 저는 매달 생리 전에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설거지하면서 머릿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이혼할 거야”,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화를 내요. 그런데 이사 나온 지 첫 달 만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 아, 그때 많은 스트레스는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에 아직 배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란)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남편은 근본적으로 왕자였어요. 워낙 귀한 외동아들이라서 매일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엄마가 가방을 받고 “아이고, 아들 수고했어.”, “들어가서 샤워해, 엄마가 밥 차려뒀어.”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 손가락으로 그릇을 살짝 미루고 기대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바로 과일을 대령했어요. “아들아 과일 먹자.” 특별히 존경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어머니 느낌이 아니라 마치 이 엄마가 노예처럼 아버님을 모시고 아들 또한 모시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아주, 뭐랄까, 우리 중국 부모는 아이에게 잘해 주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은 미천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시집 잘못 간 거 아니냐, 비교적 방황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채경)

시댁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연구참여자의 부부관계, 남편의 가사 참여 등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오단 씨의 남편은 마마보이 성향으로 인하여 부부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내와 2살 아들이 함께 사는 집을 두고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함께 위아래 층에 거주했을 때 아들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나면 문밖에서 몰래 엿듣다가 아들한테 “그녀와 3년만 살다가 이혼해” 라는 말도 하였다. 마오단 씨는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주원인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부관계에서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하여 마오단 씨는 함께 거주했을 때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수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원망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소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나 권위적인 남편과 시댁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가족생활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댁과의 분리가 쉽지 않은 답답한 가족생활 분위기에서 잠시라도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다. 특히, 정착 초기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외에 친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외국인으로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댁과 함께 거주,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 여러 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놓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였다.

최빙빙 씨의 경험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센터를 찾는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다. 최빙빙 씨는 소개 결혼으로 한국인 남편과 인연을 맺었다. 한국에 온지 1년 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한 그녀는 가끔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소수의 외국인 아내들과 모이며 기분전환을 하였다. 이렇게 알게 된 중국인 친구에게서 다문화센터⁵⁾라는 곳을 소개받은 후 최빙빙 씨는 바로 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다. 센터의 서비스를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5)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센터(多文化中心)로 편하게 불렀다.

은 그녀를 사로잡은 매력 중 하나였다. 중국에서 남의 도움이 없이 원하는 삶을 살던 그녀는 한국 생활에서 많은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소외집단이 되었고,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고맙게 느껴졌다. 게다가 센터에서 접촉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롭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가능한 것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었다. 최빙빙씨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센터를 알고 나서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센터는 “떨 수 없는 삶의 일부(조춘설, 정채경)”, “친정집(진란, 류효연, 리아홍, 최빙빙)” 등 여러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속해 있었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센터) 왔을 때 모든 것에 접촉하는 것이 매우 새롭고 신기했어요.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요. 다문화센터를 접하기 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매일 아이들을 돌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요리를 하고, 점심, 저녁은 다 요리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을 돌봤어요. 생활이 지루하고 단조로웠어요! 그런데 다문화센터를 접하고 나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주 4일 정도는 다 센터 활동으로 시간을 안배했어요. (...) 새로운 것, 예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것들, 매일 매일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다문화센터를 접하고 나니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와 비슷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국인 친구들, 아이 이야기도 하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생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최빙빙)

2. 가족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문화 습득

연구참여자들은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이다. 드라마에서 나온 예쁜 화면을 보고 한국 사회에 대한 좋은 인상과 동경을 가지고 유학이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다. 남편과 중국에서 만나 같이 살다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도 중국보다 한국의 육아 환경에 더 만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들의 “한국이 좋은 나라이다, 서울은 괜찮은 곳인 것 같아(티안웨이)”, “공

기, 육아 환경, 의료, 사회복지, 식품위생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의 환경을 더 선호해요(우춘련, 왕진진, 황친, 최빙빙, 류효연)” 등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일정 기간을 살았기에 가족과 사회생활의 힘든 점을 많이 체감하였으나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았다. 사회환경에 대해 만족한 이들은 한국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한국 삶의 최대 지장이라는 것을 연구참여자들 모두 공감하였다. 이는 가족과 외부사회와의 많은 부딪힘을 통해 나온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큰 불편 없이 살고 싶으나 첫 시작부터 이미 언어소통 문제나 사회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삶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양옌옌 씨, 최빙빙 씨 등 소개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연구참여자는 한국어 못하기에 한국인 가족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었으며, 닝산산 씨와 정채경 씨처럼 자녀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어린이집 알림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 또한 장영진 씨, 진란 씨는 한국어 부족으로 혼자서는 집밖의 낯선 환경으로 나갈 수 없었다. 마오단 씨, 우춘련 씨 등과 같이 취업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을 가진 연구참여자에게 한국어는 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커피숍에서 조선족이 있어서, 우리한테 통역해 준거예요. 제가 ‘집이 보고 싶다고’ 했죠. 정말 집이 보고 싶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 조선족이 ‘가다’ 를 말했어요. ‘중국 가고 싶다’.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제가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중국에 돌아가고 싶다(想回中国)’ 고 말하면 누가 들어도 불편하겠죠. ‘중국 보고 싶다(想中国)’ 로 번역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 ‘중국 보고 싶어’ 와 ‘중국 가고 싶어’ 의 차이는 크죠, 이렇게 간단한 단어, 그때는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그 조선족이 왜 통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생각을 좀 해보면, 오자마자 바로 돌아가려고. 그때는 저도 몰랐지만, 나중에 둘이 대화했을 때 제가 이 오해를 설명했어요. (...) 바로 한국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양옌옌)

양옌옌 씨의 이야기는 소개로 결혼한 연구참여자의 초기 가족생활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이다. 소개로 결혼한 다문화 부부인 경우, 결혼 전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을 키워야 하는 신혼생활은 언어로 인해 빈번히 오해를 초래하였다. “가고 싶다”와 “보고 싶다”, 동사 하나 차이에도 불과한데도 직접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양옌옌 씨 부부에게는 신혼생활에 불쾌와 오해를 야기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의 통역이나 사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정착 초기에 있는 연구참여자를 힘들게 했다. 진란 씨의 남편은 오래 중국에 살았기에 부부간 대화는 간단한 중국어로 진행할 수 있지만 바쁜 생계로 인하여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진란 씨는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받았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으나 시어머니에게 실수할까 봐 “다녀오겠습니다” 처럼 간단한 한마디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외부에 나가서 유치원 선생님과 아이의 등원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에 선생님한테 실없이 웃기만 했다. 언어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밝고 당당하게 살던 이들은 “멍청이 같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위축된 삶을 살게 되었다.

언어장벽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집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독립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도 초래하였다. 언어적인 부족으로 이들은 남편 없이 은행, 병원, 관공서 등에게 가서 복잡한 일상적인 일들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사회환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어도 서툴렀던 시절에 혼자 밖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컸다. 연구참여자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고 외부사회와 접촉할 때 “무섭다”라는 심리적 부담감은 한국 삶에 내내 계속 존재하는 정서적인 불안이다. 왕진진 씨는 한국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 13년 동안 살았기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밖에서 남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편이었다. 똑같은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하면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할 자

신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겁이 나서 중국처럼 당당하게 남의 잘못을 따지지 못했다.

저는 지금 밖에서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할까 봐 겁이 나요. 만약 어떤 불만을 얘기해야 할 상황이면 제가 조심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면 저는 무서워요. 중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일이 커지면 제가 잘 처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남과 다투기 시작했어, 제가 그(녀)를 말로 이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이 악화되면, 한 걸음 나아가서 처리해야 하면, 저는 그들 현지인보다 순조롭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중국)에선 제가 그럴 리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직접 신고할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잘못하면 끝까지 그에게 이 일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혀려고요. (왕진진)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내포된 한국문화를 현지인처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연구참여자에 “두려움”, “무서움” 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 새로운 언어 습득과 모국어의 유지, 그리고 서로 차이가 있는 문화가치관의 균형, 주류사회와 자신의 행동방식을 조화해야 하는 것 등 (Torres et al., 2012)은 연구참여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한 생활 사건들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은 (Berry, 2006) “미치겠어(진란)”, “답답하다(마오단, 장영진)”, “이해 못해(티안웨이, 류효연)”, “억울해(진란, 우춘련, 황친, 정채경)” 등 여러 표현으로 표출되었다. 외국인으로서 언어 하나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일상에서 아내, 며느리, 엄마, 직장인 등 신분으로 사회정착을 하려면 자신의 문화 가치관, 행동방식 등을 주류사회 규범과 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인간관계는 한국보다 평등적인 면이 있다. 일정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비교적 편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해도 된다는 것이 관계 측면에서 평등의식을 가진 중국인 연구참여자의 생각이다. 더불어 중국 동북지역 사람의 성격은 직설적인 편인데, 이는 한국인의 돌려서 말하는 완곡한 어법과 다른 부분이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가족과 사회에 접촉했을 때 경험한 문화 충돌을 통해 양국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해하려 하였다. 다

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한국의 관습에 맞춰 조심하게 넘길 수 있기 위해서다.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으며 일부 관용구, 속담, 유행어 등을 다 잘 구사할 수 있으면 그만큼 한국 사회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외국인은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유창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습을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주로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의 말은 비교적 완곡한 어법이기에 그들의 완곡어법에는 일종의 고정된 방식이 있어요. 제가 그런 화법이 원래 없기에(...) 예를 들어 “이것 어려우면 나한테 연락해줘.” 저는 그 말을 믿고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 그녀에게 바로 연락했지만, 그녀는 “왜 나에게 연락했는가?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속였다는 느낌. 주로 이 걸치레의 말과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마오단)

“새로운 이주여성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질문했을 때 모든 연구참여자의 공통된 제안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배우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초기정착 단계가 가장 어려웠는데, 이 시기 어려움의 근원을 한국어와 문화의 부족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오랜 한국 삶의 경험을 통해 내린 견해는 한국에서 가족기반으로 뿌리내리고 한국 사회와 통합하려면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한국어,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것은 삶을 더 수월하게 펼치기 위해서였다.

한국어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향후 한국 삶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 이들이 능동적으로 한 사회와의 첫 접촉은 집에서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당시에 입국한 연구참여자가 센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았다. 가족의 인터넷 검색이나 동사무소, 중국인 친구의 소개를 통해 센터를 찾아서 한국어교육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대학교 어학당, 학원의 유료 한국어 수업을 먼저 듣고 다시 센터를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다문화센터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저의 한국어에 대한 어떠한 기초도 없었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생활도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우리 남편과 중국어로 소통하지만, 혼자 밖에 나가면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이 서비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한국어를 배우러 갔고 그때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장영진)

이들이 각각 한국어 배우기 시작하는 경로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동일하게 센터에서 한국어를 장기간 배우게 되었다. 초급(1급)부터 중급(4급)까지 배우게 되었고 “왜 센터의 한국어교육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무료라고 답을 하였다.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언어교육의 경우 일반 어학당이나 학원을 통할 경우 비싼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조춘설 씨가 2개월간 일반 학원을 다닌 후 그만둔 이유는 비용적인 부담과 함께 수업도 1주일 동안 2회만 하여 언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초·중급 한국어교육은 어느 레벨을 신청해도 반복 수강이 가능하기에 남편의 눈치를 봐야하는 연구참여자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센터와 학원 양쪽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경험자로, 이들은 센터의 한국어 수업이 학원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좋다는 평가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교육을 받은 세대로 각자 좋은 강의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었다. 무료강의의 수준이 유료수업보다 못하지 않으면 “당연히 잘 배워야 하지 않을까(마오단)”라는 인식은 연구참여자들이 센터의 한국어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된 이유였다.

무료 공부는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강의가 너무 좋아요. 유료 교육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따라, (...)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특히 잘 해요. 그녀는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녀는 미리 그 한국 단어가 무슨 뜻인지,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다 찾아서, (중국어 뜻)다 적어 넣고, 그리고 수업했을 때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잘 보여주니까, 한 눈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고,

다시 그녀의 설명을 통해 다 이해했어요. 숙제, 한 명씩, 한 명씩 질문하고, 받아 쓰기, 읽기, 이런 것들, 아주 좋아요. (조춘설)

누구든 무료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연구참여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만족하고 고마운 감정을 가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를 감으로써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부족한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리아홍 씨와 조춘설 씨 등 많은 연구참여자는 정착 초기 시절에 외로움을 심하게 느꼈다. 사실 한국의 음식이나 생활환경은 중국 북방(北方)지역 출신의 리아홍 씨에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 남편은 리아홍 씨와 딸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일부러 초기 반년의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함께 지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반년은 리아홍 씨에게 가장 힘든 시절로 기억되었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도 있으나 센터를 모르는 시절에 홀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외로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 후 센터 방문에 대한 그녀의 첫인상은 “신세계의 문이 열렸어요” 였다. 그녀는 “나 혼자 한국에서 고군분투(孤軍奮戰)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센터는 중국인 네트워크의 첫 연결 노드가 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너무 잘 기억나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곳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소개를 받았어요. 마침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저를 교실로 불러 같이 공부했어요. (...) 수업이 끝날 때 주위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구나, ‘아, 나 혼자 한국에서 고군분투(孤軍奮戰)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고 아직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리아홍)

한국어교육을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센터의 문화프로그램도 이용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사고방식, 습관, 대화법 등의 차이를 인지하여 그 간격을 줄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한국어 교과서의 대화 내용은 문화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어

를 습득하면서 동시에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한국어와 문화교육이 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 하는 생각을 들었나” 라는 질문에 대해 이들은 모두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어교육 중 배우는 전통관습, 예절, 존댓말, 제사 등의 내용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각종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 서비스 또한 센터를 자주 찾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다문화센터 교과서에는 문법, 단어, 문장 등의 기본적인 것 외에도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 명절, 예절, 그리고 일상생활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제사 같은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결혼이민자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황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센터를 이용한 후 문화프로그램 등 다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알게 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일부 해소할 수 있었기에 연구참여자들의 센터 이용 동기는 단순한 한국어 학습에서 점차적으로 다양해졌다.

3. 양육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과 센터의 종합적 정보 제공

자녀가 연구참여자에게 제일 순위이며 현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각 연구참여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빈도가 가장 높게 출현한 단어는 바로 “아이”(孩子, 해자)였다. 자녀의 연령대는 차이가 있으나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 위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남편과의 관계, 자아 발전 가능한 사회진출의 기회 등이 만약에 자녀의 안정 성장과 충돌하면 이들은 자녀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생긴 후에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향후의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하였다.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혼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혼자만의 삶이 더 낫다고 한 류효연 씨와 정채경 씨조차도 현재 자녀양육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의 삶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는 연구참여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은 현대 중국인 여성의 이중적 성역할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외부 사회관계에서 평등한 자유경쟁과 개인으로서 삶의 성취를 추구하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전통적 성역할을 선호하는 것이다(Ji, 2015). ‘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은 사랑과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기에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삶이) 더 안정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달려온 목표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초기에는 젊고, 매일 회사와 집을 왔다갔다만 하고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기 싫으면 나중에 이직할 수도 있어요.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 게다가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착실히 생각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의 발전 가능성, 재산의 축적, 이런 것들 말이에요. (왕진진)

“여자는 원래 약하나, 어머니가 되면 강해진다 (女人弱，为母则刚)”, “엄마가 되면 부엌에 내려갈 수 있고 의사당에 올라갈 수 있다(下得了厨房，上得了厅堂)” 라는 정채경 씨의 묘사들은 대부분 중국인 연구참여자의 이중적 성역할 태도와 엄마가 된 후의 개인적 성장을 잘 설명하였다. 충애를 받으면 자란 외동딸이 엄마가 되고 나서 유약하였던 면에서 벗어나 많이 강인해졌다. 결혼 초기에는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열심히 돈을 모아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포기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현 단계의 가장 높은 순위였다.

외국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변화를 가져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양질의 가족과 사회생활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은 여러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해 반영되었다. 가장 먼저 자녀가 중국인 엄마로부터 받은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녀가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외부사회와 적극적으로 접촉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삶에 융합하였다.

(적응 잘하는 요인) 당연히 아이 때문이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른 한국인에 비해 소외된 집단이라고 한다면, 나의 영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한국)의 환경, 여기의 생활에 최대한 융합하려고 노력했어요. (왕진진)

현재 삶의 중심을 자녀에 두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이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자녀에게 제공하였으며, 만약에 자원이 부족한 경우 시간제 일을 함으로써 자녀의 학원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투자행위 뒤에는 하나의 큰 우려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문화가족으로서 자녀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의 시선도 개의치 않는 당당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정채경 씨조차도 자녀가 차별이나 부정적 시선을 받을까 많은 걱정을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엄마들 못지않게 자녀의 교육과 취미에 투자하였다.

뭐랄까,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교육에 관해서는 나중에 아이가 저를 원망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에이, 엄마는 중국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남의 엄마는 다들 이것저것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에게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봤어.” 이런 말과 같은 것들,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원망할까 봐 두려워요. (정채경)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양육자로서의 남편 역할에 대해 관계 측면과 양육 참여 측면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좋은 부부관계가 자녀의

성장을 위한 전제라고 생각했기에 자녀를 위해 남편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만약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하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스스로를 인내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를 아빠나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참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본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되고, 집안일이나 자녀에 관한 일은 중국인 아내에게 넘겼다. 남편이 가족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본인이 가사를 전담해도 불만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였다. 중국에서도 자녀양육은 주로 여성의 몫이지만, 젠더평등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인 남편은 한국인 남편보다 더 많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회의 문화와 육아 정보를 아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남편이 중국인 아내의 육아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연구참여자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가사 일을 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이것은 비교적 커다란 결핍이에요(缺失). 아이가 아빠가 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해요. 아빠가 오늘 집에 있어, (아이는) 몰라요. “아, 아빠 집에 있어?”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주말에 종일 잠만 자는 것) 이해가 안 돼요. 일이 바빠서 힘들고 늦게 들어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말에 종일 집에서 잠만 자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주말에 이 일 때문에 서로 매우 불쾌하게 지내요. (류효연)

몇몇 연구참여자들(티안웨이, 왕진진, 진란)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녀양육에서 남편의 역할 부족을 중국 단어 “甩手掌柜(hand-off boss)”로 표현하였다. 앞의 표현은 자신은 손도 꿈쩍하지 않고 남에게만 시키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남편의 참여 부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자녀양육에 남편이 잘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한국의 보수적

인 가족문화의 일부로 해석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제 남편은, 한국 남자는 기본적으로甩手掌柜(hand-off boss)가 많아요. 그는 아이의 공부, 유치원 선택, 생활, 도서 등등 모든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이 모두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엄마들도 마찬가지로인데 아빠의 그림자도 못 보고 다 엄마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우리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은 대부분 엄마들의 몫이에요. 저는 이것은 한국의 보수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티안웨이)

사실 자녀양육은 돌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까지 포괄한다. 자녀가 어리면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중국인 아내가 힘들게 버티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게 된다. 자녀교육을 학원에 맡긴 상태에서도 그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어느 학원의 어떤 과목이 유명한지, 아이를 어디에 보낼 수 있는지와 같은 진학 관련 사항들을 어머니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 중국인 아내는 자녀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느꼈으며,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참여한 학습지도는 남편의 화난 목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연구참여자가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외국인이기에 한국의 보육 및 교육시스템과 육아 정보에 대한 이해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과학적인 육아 지식의 습득에 열의를 가지면서 전문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을 지녔기에, 자녀의 성장을 위한 과학적인 환경, 정보 구축 등에 부족함을 느꼈을 때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었다. 한국의 보육 및 교육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은 결혼 후에 바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둘째 아이까지 양육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육아 경험을 회상하면서 가장 힘든 시절을 첫째 아이의

출산 및 양육의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장영진, 티안웨이, 류효연)은 한국과 중국의 시스템의 차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등록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티안웨이 씨의 아들은 또래 아이보다 언어발달이 지체되었는데, 티안웨이 씨의 남편과 당시 어린이집 교사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티안웨이 씨가 아들한테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티안웨이 씨는 아들에게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에 남편의 도움이 없이 어린이집을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티안웨이 씨는 한국의 보육 신청 절차와 규칙을 잘 몰라서 어린이집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중국에서는 모두 다 임신하고 출산 후 유치원에 다닐 때가 되면 바로 유치원에 가서 지원하면 돼요. 대기 신청을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을 생각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해당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가서 지원할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 그들의 규칙은 온라인 대기 신청을 하고 맞벌이 여부, 자녀 3명을 둔 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등 가산점을 주고 점수를 합산하거나 장애 또는 저소득 가정, 또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이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티안웨이)

센터 통번역사로 일하는 우춘련 씨는 다른 연구참여자와 비교하여 외부 사회와의 접촉이 많은 편이나, 티안웨이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중국에서는 대학 입시 전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학부모들을 모아서 입학 준비 사항들을 자세하게 전달해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춘련 씨는 자녀의 고등학교 1학년 내내 학교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러나 대학 입시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학교에서는 어떠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우춘련 씨는 “불가마 속의 개미(热锅上的蚂蚁)” 처럼 불안을 느끼면서 학교의 연락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담당 교사를 찾아서 대학 입시 정보를 알아보았다. 기다리는 동안 버린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춘련 씨는 학교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화가 났다. 우춘련 씨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으나, 그녀가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엄마와 비교하여 역사문화, 사회관계망, 어휘, 교육시스템 등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국 엄마들의 빠른 정보력에 감탄과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에게 물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그들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교육 정보를 잘 아는 한국인 엄마와 친분을 쌓으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인 엄마들에게 먼저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시간을 보내는 모임에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한국 아버지들도 잘 몰라요. 아빠에게 물어보면 아빠도 모른다고 해요, 아빠 때의 입시가 지금과 다른데다가 이런 것은 여자의 일이라 생각해요(...) 한국 엄마들은 대학 입학 방식, 어떤 학교가 좋고 어떤 학교가 나쁜지 여러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학교에 가면 앞으로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는지,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하지만 우리 다문화 가족 엄마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대학 입시를 어떤 형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춘련)

여러 연구참여자(정채경, 황친, 진란, 조춘설, Ningshan)는 한국인 엄마와 처음 만나는 장소로 놀이터를 언급하였다. 정채경 씨는 한국인 엄마와 친해지기 위하여 내딛었던 첫걸음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였다. 아들이 4살이었을 당시, 정채경 씨는 부족한 한국어이지만 아들을 위해 용기를 내서 한국인 엄마에 걸어가서 “우리 아이랑 한번 놀아주세요” 한 마디를 내뱉었다. 한국인 엄마들은 정채경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아들은 놀이터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았으며, 정채경 씨도 한국인 엄마의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국어가 미숙했던 그녀는 주로 한국인 엄마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한국인, 한국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터득하였다.

중국 사회는 “관시(关系, 인맥)” 라는 문화가 존재하며 사람을 많이 알수록 개인 삶에 유용하다는 인식이 있다. 왕진진 씨는 한국에서 본인의 인맥이 없기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편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왕진진 씨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는 육아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안으로 한국인 엄마를 본인의 인맥으로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였다. 현재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왕진진 씨는 오랫동안 한국인 엄마와 쌓은 친분을 통해 많은 육아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연구참여자들(왕진진, 황친, 정채경)은 한국인 엄마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간의 가치관이나 관점이 비교적 일치하여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한국인 엄마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표시하였다.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해야 해요.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한국 엄마)은 당신의 언어 수준을 알지 못해요. 당신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들에게 당신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가치관이 비교적 잘 어울리는 것. 그래야 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중국인) 엄마들이 한국인 엄마와 교체하는 것에 걸림돌이 많아요. 우선 언어 때문에, 한국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하려면, 정보의 공유가 필요해요. 그들이 당신에게 제공하고, 당신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해요, 바로 양쪽 서로에게 유용하다고 느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왕진진)

한국어를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장영진, 조춘설, 양연연)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엄마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 모임에서 한국인 엄마가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언어로 인해 타인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본인 주장이 강하고, 한국인 엄마 네트워크의 화두와 규범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연구참여자들(닝산산, 류효연, 최빙빙)은 한국인 엄마와 접촉할 기회가 있어도 자녀의 학원정보 알아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인 엄마와의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알기 전에 불안했죠. 한국은 어떤 절차인지, 학교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어떤 과목을 개설하는지, 잘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

어요. 첫걸음은 다문화센터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당시에 다른 한국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알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분들이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또박또박 알려주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묻는 대로 이들은 대답할 뿐이기에 이들에게서 알게 된 정보는 비교적 파편화되어 있어요. 다문화센터 수업과 달라요. 센터는 체계적인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알면 순서대로 (아이를) 보내면 돼요. (왕진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인터넷 검색을 잘 하지 못하거나 한국인 엄마에게 정보를 얻기 힘든 연구참여자들이 편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육아 정보 수집을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하면서 한국인 엄마와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센터를 전문적,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에 교육을 받은 내용을 실천하면서 이전에 쌓였던 불안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아이를 키우는 면에 있어, 육아, 생활을 포함해 좀 더 새로운 도움을 받고 싶죠. 근처를 알아봤어요. 다문화센터 (건물) 위층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예요. 사실 한국인들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정보) 알아보는 것이 더 많은 편이죠. (...) 제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기관들에 접근하는 것이 비교적 늦은 편이예요. 한국의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해서, 조금 더 일찍 접근했으면 제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늦은 친구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황친)

자녀와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인 갱신 및 습득을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 소식을 유심히 살펴보고 관심 있는 활동이 있으면 바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네에 새로운 중국인 친구가 올 경우 센터 홍보대사 역할을 하였다. 육아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원에게 관련 소개를 편하게 받을 수 있기에 다른 친

구들에게 센터를 추천하였으며, 유익한 자녀양육이나 개인계발에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4.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개인역량 강화

‘한 자녀정책’ 배경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생활과 사회에서의 평등과 개인 성취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와 진정한 접촉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연구참여자에게 여러 주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녀평등 의식이 강한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집에서 아이를 보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지 사회에서 수입이 안정한 일을 구할 수 있다면 평소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타국생활에서 위축된 자존감의 향상과 개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직장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대인관계, 문화, 사회현황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매일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주요한 역할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 가치의 실현과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중국 대졸 학력으로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나 한국에 온 후에 바로 출산하여 자녀양육만 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장영진 씨는 현재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마다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전에는 스스로 능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죠, 그냥 혼자 먹고 살 수 있고 돈도 좀 벌 수 있어요. 지금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자기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정서가 불안정해져요. 지금 자꾸 핑계를 대고, 아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애를 위해서는 나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 나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 집에만 있고, 매일 이렇게 아이를 보는데, 가정 밖의 사회에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 많은 사람들이 (엄마 역할)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초조함이 느껴지곤 해요. (장영진)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은 개인의 힘으로 돈을 벌고 가정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일보다 개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30대 연구참여자(마오단, 류효연, 황친, 정채경, 티안웨이)는 개인 독립(獨立)과 자신의 삶을 많이 강조하였다.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비를 쓰는 상황이 이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외부와 많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남편에게 의존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개인, 가정의 생활비 이용에서 남편의 눈치를 안 봐도 되며, 자녀 교육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도 더 평등한 자세로 남편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공정 의식이 강한 한족 여성은 부부간 공평하게 자녀교육과 생활비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남편 의견에 따라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보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딩징야, 진미정, 2018).

지금 내가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남편은 현재 경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는 돈의 절반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했어요. 직업이 없지만 전 그 돈을 낼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유치원은 150만원인데 나는 “나는 75만, 너는 75만. 이 정도면 괜찮을까?” 라고 말했고 그에게 균형(平衡, 공정)을 주려고요. 내가 내는 것, 내 부모의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집은 자식이 하나만 있어서 우리 부모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중

국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남편은 우리가 이런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돈의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경제권이 없잖아요. (...) 그래서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그와 협상할 능력이 생겨요. (티안웨이)

일은 자녀의 학원비를 보태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자녀의 학원비는 연구참여자 가정의 일상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남편의 수입만으로 가계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 학원을 다 보낼 수 없다고 보았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일부 연구참여자는 한국 화장품 판매, 한국직구 등 시간제 일을 찾아서 돈을 벌고 있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자녀가 다닐 학원의 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다 학원에 다니는 분위기여서 양육 담당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비다문화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 아이에게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오단 씨는 1차 인터뷰 당시에 의학 통번역 분야에 취직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통번역 교육을 듣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상태였다. 그녀는 경제력이 가정에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취직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취직만 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마오단 씨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연구참여자의 생각을 대변한다. 거의 두 달 뒤 2차 인터뷰에서 다시 만난 마오단 씨는 1차 때와 완전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그녀는 화장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참석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병원의 통번역 업무를 이야기하면서 충실하고 유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은 독립적인 지위의 표현이자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일하는 것은 이들에게 집과 집주변으로 구성된 좁은 생활권에 벗어나 더 넓은 사회와 접촉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과 자신의 힘으로 자녀에게 더 나은 학습의 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하였다. 일을 통해 이러한 뿌

뜻함을 얻을 때마다 연구참여자는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자신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와!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돈도 벌고, 가족도 챙길 수 있어요” 라는 진란 씨의 진술을 통해 일이 연구참여자에게 여러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나가서 일하는 이유는 주로 아이의 교육비이지만, 또 하나는 자기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일을 통해 얻은 만족감은 정말 다른 것과 달라요. 제가 물건을 못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물건을 많이 팔고 들어올 때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저도 제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게 돼요. “와!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돈도 벌고, 가족도 챙길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몸과 정신이 즐거워요. (진란)

안정된 직업의 의미는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30대 연구참여자에게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각자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었다.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양호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쟁 사회의 규칙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경쟁해야 하며, 중국인 집단 안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에 중국어 하나만의 장점으로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구직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연구참여자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 지원기관의 자격증 교육을 찾아 개인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외국인 아내를 위한 취업준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한국어나 자녀양육 목적으로 센터에 처음 방문했으나 취업준비 교육, 바리스타, 다문화강사 등 자격증 교육을 발견한 후에 열의를 다하여 참여하였다. 다문화강사양성 교육은 각 국가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모국 문화를 강의하는 기법을 배우고, 수료한 여성은 동네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다문화강사양성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왕진진, 닝산산, 티안웨이, 최빙빙)는 고용복지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다른 공공 기관의 취업 교육을 이용해본 적이 있었다.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교육은 다양하고 실용성이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센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고용복지센터는 한국인을 타겟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배려가 적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을 때, 당신이 한국 사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감안해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알아듣지 못할 때 천천히 말하거나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해요. 하지만 일반 취업지원센터에 가면 한국인 집단 대상으로 해서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면 특별히 챙겨주지 않아요. (...) 결혼이주여성에 맞춰서 서비스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 당신에게 연결하는 실습은 일부 회사가 외국인 인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향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왕진진)

고용센터와 같은 곳은 외국인 이주여성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다. 강의할 때 만약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천천히 말하거나 다른 단어로 바꿔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취업교육과 실습기회를 연결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소개를 하였으나 다른 지원센터의 경우는 연결하는 회사가 외국인을 선호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 실습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업교육에 있어서 센터와 기타기관의 차별점을 “확장성”과 “연속성”이라고 설명하였다. 확장성은 이용자 본인이 특정 교육 하나를 신청하면 센터가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다른 취업교육이나 취업교육 기관을 추천 및 연결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진진 씨는 한국에서 학부, 대학원 시절을 지내 현재 어린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다. 그녀는 취업 욕구가 강하지만 육아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풀타임 직업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 사회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지역구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 컴퓨터자격증 교육 등 여러 취업교육을 활용하였다. 센터는 왕진진 씨의 취업 욕구를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개인역량을 개발

하는 프로그램과 연결하였으며, 왕진진 씨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실습 기회를 얻었다.

연구참여자가 말하는 센터의 “연속성”은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직원이 외국인 아내에게 다른 프로그램도 소개해주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센터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아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확장성 및 연속성 등 센터 서비스의 특성은 연구참여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전문기관으로 인지하여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란 소속감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이들이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문화센터는 한국에 처음 온 결혼이주여성에게 정말 우호적이에요. 한국어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가족생활에 비교적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에요. 센터에서 개설된 수업들을 보면 실용 기능을 길러주는 내용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창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업료는 모두 무료이라서 부담이 되지 않아요. 시간만 있다면 이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분야의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왕진진)

5. 다문화가족의 생활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가 미숙한 상태에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할 경우, 행복해야 하는 신혼 기간에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부모로서 살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남편이나 본인의 직장을 잃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예전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조언을 구할 곳이 없었으나 센터를 알게 된 이후에는 생활상 사소한 일부부터 부부관계의 위기 대비, 병원 의학용어의 통번역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생각나

게 되었다. 마오단 씨는 결혼생활 내내 센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 한국어교육 위주로 이용했지만,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리교실, 부부상담 등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남편에게서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았기에 부부간 관계가 깨질 경우를 대비하여 마오단 씨는 센터의 취업준비 교육, 생활지도사, 다누리 콜센터 등을 통해 한부모 생활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 취업, 한부모 관련 정책 등의 정보를 구했다.

우리 집은 저와 남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현재는 이혼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활지도사)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불편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저를 위해 신경을 써 주셨어요. (마오단)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생활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국문화와 충돌이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센터에 가서 조언과 해결책을 구하게 되었다. 이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습득해야 할 생존을 위한 기능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된 한국어부터 문화, 생활 및 양육정보, 교육시스템, 개인기능, 국가정책까지 모두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다. 어학당, 인터넷 검색, 한국인 어머니 등 각종 지식의 접근 방식은 하나하나의 별도의 채널이며 단편적이며 효율적이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국어, 개인역량, 양육, 문화정보 등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의 생활 어려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연구참여자에게 삶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 습득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어나 자녀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를 첫 방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였다. 진란 씨의 진술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센터의 이미지를 알 수 있다. 입국 초기부터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의 어려움 해소까지 필요한 언어, 정보, 기능 등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는 장소이다.

다문화센터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외국에서 온 경우에는 더더욱 좋은 곳이에요. 센터가 없으면 어디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만약 다시 다른 나라에 간다면, 센터와 같은 곳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먼저 학교에 가서 언어를 배운 후, 이 나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한 후에, 제가 어떤 직업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취직하고 싶다면, 제가 먼저 관련 교육에 등록해서 필요한 것을 배울 거예요. 다 배우고 나서 바로 취직할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문화) 센터라는 장소이죠. (진란)

이와 동시에 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체험활동을 당분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장영진 씨가 다니는 센터는 곧 온라인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석인원이 모두 만보기 앱을 설치한 후에 열흘 안에 걸음 수에 따른 상품을 수여하는 온라인 운동회를 개최함에 따라 장영진 씨가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센터가 이러한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에 감탄을 하였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의 지속적인 새로운 활동 개발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였다. 신설된 프로그램의 이용만족도가 높은 경우 추후에 계속 운영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반응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지한 연구참여자는 센터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 센터의 장기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센터가 그 요구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문화가정의 요구가 무엇인지, 센터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죠.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다 신청했어요.” 센터에서 첫 번째 시도를 하고 효과가 괜찮으면, 그리고 두 번째도 할 거예요. 센터는 이렇게 지속해서 발전하여 나가는 거예요. (정채경)

제2절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한 바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주로 언어 및 문화 차이로 발생한 삶의 어려움, 홀로 감당하는 자녀양육의 문제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의 두 영역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어 많은 다문화가족 이용자를 흡수할 수 있었다.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의 상태, 행위, 능력, 인지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휴먼서비스의 운영성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Martin & Kettner, 1996) 이들의 인식은 유용한 정책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대치 및 이용에 대한 인지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양육부담의 경감, 가족관계 증진, 사회통합 여부 등 주관적 인지는 개인의 사회적 맥락의 다양한 요소들에 연결되어있어(Barrington-Leigh & Wollenberg, 2019) 센터 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삶의 변화를 해석할 때 본 연구참여자가 가진 중국 ‘한 자녀’ 세대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 삶에 대한 욕구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는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진입의 이중적 기대가 있다. 이들은 현재 삶의 중심을 자녀에 둔 가족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면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한국 사회와 접촉 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다. 화장품 판매, 한국직구와 같은 시간제 일은 개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용돈 벌이에 한정되어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진출의 신호로 보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동시에 중국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려 한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이들이 인지하는 한국 사회와의 진정한 통합은 주로 “한국어를 아주 잘 하는 것, 현지사회의 문화, 생활망의 통합, 모국에서 살 듯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것, 직업이 있고, 현지인의 인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모국에서 살 듯 사는 것과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목표하는 사회통합이 된 상태가 아니다. 자기 세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한 연구참여자가 있고 현재처럼 열심히 살면 미래에는 통합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참여자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갈망이 강하며 직업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인지한 진정한 사회통합의 단계에 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원하는 통합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주체로서의 문화적 통합,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통합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면 안정된 가족생활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현지 사회에서 남편,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의 역량강화, 직업 등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 연구참여자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두 영역에 대한 지원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향후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의 발전 방향 등을 중국인 아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양육에 도움을 받았으나,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함

자녀양육은 연구참여자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센터 이용을 통해 이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우선 동네의 놀이터에 벗어나 센터의 키즈카페, 문화체험 활동에서 동네 또래 친구들과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방문지도사 서비스를 통해 자녀교육 부담이 완화되었다.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연구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며 항상 집 안팎에서 비난받는 원인 중 하나였는데, 센터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답을 얻기도 하였다. 자

녀입학교육, 부모교육 등을 통해 한국교육 시스템과 양육 관련 지식을 얻고, 육아 과정에 있었던 불안과 무기력을 해소할 수 있었음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녀학습 방문교육은 인기가 매우 높은 서비스이다. 무료로 아이의 학습을 지도하면서 초등학교의 기본상황, 필요한 물품 등 중국인 어머니에 친절하게 교육의 노하우도 알려주었다. 경제적 부담이 없이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지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초등학교 입학준비’ 라는 책이에요. 한쪽은 중국어, 다른 쪽은 한국어. 그들은 이런 책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한국 학교의 상황에 대해 확실히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한국의 경우는 더 몰라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선생님께 배우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속으로 감을 잡았어요. 다음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고 마지막 수업 때 선생님을 보내는 것이 정말 아쉬웠어요. 만약 제가 돈이 있다면, 저는 그 선생님이 아이를 계속 가르치도록 비용을 내고 싶어요. (진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 언어발달 지체 증상을 느꼈을 때 걱정을 하며 혹시 본인이 중국어를 사용하기에 자녀에게 언어적 혼란을 초래할까 특별히 자녀 앞에서 중국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티안웨이 씨의 아들도 언어발달이 주변 또래 아이보다 늦은 편이었으며 아들과 대화했을 때 티안웨이 씨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남편은 많은 비판을 하였다. 그녀는 초조한 마음에 언어발달치료 서비스를 찾기 위하여 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아들의 언어발달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이중언어 교육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센터의 이중언어 교육을 듣고 나서 외국인 어머니가 모국어를 아이에게 말하는 것에 확신이 생기게 되어 티안웨이 씨는 아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도 “다문화센터 선생님들은 전문

가예요. 그분들이 이화여대 교수님들인데 이중언어교육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하였다. 센터와 이화여대 교수의 전문성으로 남편은 티안웨이 씨가 중국어로 말하는 행위에 더 이상 반기를 들지 않았다. 나중에 아들은 언어 폭발기에 진입하여 엄마처럼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잘하게 되었다. 티안웨이 씨도 센터의 다문화강사 양성을 통해 현재 동네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중국문화, 중국어 노래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센터는 티안웨이 씨처럼 모국어, 모국문화를 자녀에게 전승하고 싶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양육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다문화센터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고, 제 일이 너무 바빠서 어요, 아이가 없을 때는 혼자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제 아이 때문이에요. 저는 토박이 한국인이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가 여기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와 관계를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센터가 필요해요, 이런 기관이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에게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저에게 뒷받침 하나 있는 느낌. (티안웨이)

자녀가 커가면서 진학, 성장발달, 부모자녀 관계 등 문제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막막한 부분이 많았고 자신의 양육방식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전문가의 지도가 가능한 센터의 부모교육을 이용하였다. 교육을 이용한 후에 중국인 아내들은 육아 태도, 학습지도, 자녀와의 소통 등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인터뷰했을 때, 자신이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 얻은 교육내용의 포인트를 다시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최빙빙)”, “사실 엄마도 조금씩 성장해요.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우리도 신참이에요. 함께 성장하면 돼요(황친)”. 자녀의 발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미리 받은 연구참여자도 있으며 자녀의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등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온 연구참여자들도 있다. 자녀양육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최빙빙 씨처럼 교육을 통해 받은 인식의 변화를 아이와의 일상에 최대한 적용하여 부모

와 자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교육) 도움이 돼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다 꾸짖잖아요. “어머나, 네가 왜 그랬어?” 바로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부모)교육을 통해 왜 좋은 엄마가 있는지, 나쁜 엄마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이의 성격이 왜 좋은지 나쁜지를 알았어요. 아이가 같은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히 먹여준다고 해서 그가 즐거움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어요. (최병빙)

(부모교육 강사분) 초등학교 교사이고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모든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이가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사실 엄마도 조금씩 성장해요.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우리도 신참이에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면 되니까. (부모교육) 제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황진)

센터 서비스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에게 불리함이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의 언어발달 시기에 나타난 언어 지체, 가족생계를 위해 멀리 떠나가는 아버지, 경제적 이유로 자녀의 취미 개발에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 등의 부족함은 센터의 자녀 관련 서비스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발달치료, 방문교육, 멘토링과 합창단, 야구단, 연극단 등 취미 활동은 다문화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만약 자녀가 언어발달기에서 한국어 어휘, 발음 등이 또래 아이보다 지체하는 현상을 경험할 경우, 언어치료사가 일정 기간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의 언어발달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언어발달 치료서비스를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서비스의 높은 수요도로 인하여 장기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 센터

의 첫 서비스로 자녀의 언어발달치료를 이용하였다(진란, 티안웨이, 정채경). 이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은 모두 남자아이에게서 발생한 언어발달 지체 문제이며 아이의 언어 지체의 원인을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찾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의 언어발달 시기에 따라 언어 수준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자녀의 언어 지체를 스스로 의심할 경우 센터의 언어발달 테스트를 받고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한 후 안심한 연구참여자가 있었으며 치료과정을 거쳐 자녀의 언어발달에 효과를 느끼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부모와 중국에 거주하다가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서비스의 치료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용한 서비스였어요. 한국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센터로 직접 데리고 갔어요. 센터에 데리고 가서 선생님과 방에서 1대1로 진행했어요. 그때 아이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 했는데 작은 방에 장난감이 많았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와 같이 놀아요. 이게 뭔지를 알려주었고, 카드가 많아요. 45분 수업인 것 같아요.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다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받은 첫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어 수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먼저 아이를 센터에 보내고 배웠어요. 배운 지 일 년이 다 되었어요. (...) 저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도 참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번 거기(센터)에 가자고 말을 했을 때 아이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런 교육을 하니깐 아이에게 천천히 말을 시작하도록 유도했어요. (진란)

대학생 멘토링, 방문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는 우춘련 씨의 가정에 유용한 서비스였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성장기에 아버지의 참여가 부족함을 토로하였으나 우춘련 씨의 사정은 조금 특별할 수 있다. 남편은 직장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아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한국에 없는 아버지로 인하여 우춘련 씨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건강, 한국 어휘 및 문화 습득 등의 면에서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성인의 지도가 필요함을 고민하였다. 다행히도 센터의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학습방문지도 등의 서비스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부

재로 인한 정서 및 인지 발달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둘째 아들은 3, 4세 때부터 이미 어머니를 따라 센터 활동에 참여하였다. 10년 이상 아이의 성장기에 맞추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방문지도 선생님, 멘토링 대학생 형이나 누나와 대화하는 시간은 둘째 아이가 매우 좋아하는 시간이었으며 센터의 야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이의 자립심과 같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센터의 자녀 관련 서비스는 우춘련 씨에게 단순한 내용 전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 발달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도 도움이 되었다.

우리집은 아빠가 한국에 없어서 그런지 아이 주변에 한국인 한 명이 그에게 올바른 생각 지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단지 대화일지라도 괜찮아요, 대화는 그의 언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중국인 엄마)는 한국어 속담, 관용구 등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멘토링에 참가했는데 제가 그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일하러 가야 해서, 애가 혼자 지하철을 타야 하는 데도 꼭 멘토링을 가려고 했어요. 아이가 (그 활동) 너무 좋아했어요. 형, 누나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좋아서 인지도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은 다 인지능력이 좋고 공부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부모가 줄 수 없는 일부(영향력). 아이들이 이런 대학생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우리 다문화가족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춘련)

중국인 아내들은 센터의 자녀 관련 서비스를 잘 활용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합창단, 연극단, 야구단, 악기, 만들기 등 자녀의 취미 개발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기에 중국인 아내들은 센터의 무료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였고, 자녀가 성장하여 학교의 연극, 합창단, 연주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센터의 비슷한 활동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인 아내들은 서비스 이용이 자녀 성장에 긍정적이며 작은 변화들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딸이 연극단을 이용하려고 다른 구의 다문화센터에 갔어요. 활동 하나에 참

여하기 위해 한 시간씩 움직이고 왕복으로 두 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불편했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모든 면에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시간을 희생해야 했어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아이가 되어서도 연극을 무척 좋아해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봤고 경험도 있어서, 앞으로 다른 연극을 접하게 되면 주눅 들지 않고, 많은 사람의 무대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최빙빙)

최빙빙 씨의 진술처럼 취미개발 같은 서비스를 통해 다른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 예를 제공했다. 관련 서비스의 효과를 알기에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는 센터의 가족체험 활동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장기 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센터 이용 초기는 가족단위의 문화체험, 1박2일 같은 활동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가족체험 활동이 점점 사라지고 교육의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체험 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즐겁게 여러 장소를 놀러 갈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가족단위 활동의 참여 조건 중 아버지가 참여시 우선적으로 참가가 가능하기에 류효연 씨의 집처럼 평일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적은 가족에게 아빠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만족하고 있었다.

1박 2일은 가족끼리 가는 거잖아요. 총 10가족, 15가족, 다 같이 가요. 가는 곳은 다 먼 곳인데, 차를 타고 두 시간, 세 시간, 어떤 때는 네 시간 동안 타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안 가봤어요. 숲속에서 한 가족은 작은방 하나, 다들 함께 활동하고, 체육 활동이 너무 많아요.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이들도 즐거웠고, 부모들도 즐거웠어요. 이 기회에 아빠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류효연)

센터의 서비스에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으로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육아 부담의 경감이나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센터의 서비스는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현재 센터의 자녀 관련 서비스가 주로 해당 연령의 자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 중후반 연구참여자의 육아 경험을 들어보면 고학년 자녀의 경우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와 고등학생의 입시, 진로 그리고 진학 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참여자는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만 7세부터 12세의 비율은 2016년의 28.2%에서 2020년의 40.3%까지 증가하였으며(여성가족부, 2022a),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기의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청소년 관련 부모교육 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좋아졌으나, 아내의 일방적 조절

센터 이용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가족관계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이용자의 특성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센터 이용 전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주로 집에서 살림을 하여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부족한 편으로 가족 내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었다. 센터에서 물건 만들기, 요리교실, 자조 모임 등의 활동에 함께 참여한 친구와 이야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집에서 쌓인 답답한 감정들이 센터 활동을 통해서 풀리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마친 후 편한 마음으로 귀가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분이 좋다(开心), 재미가 있다(有意思)” 등의 표현은 연구참여자들이 센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에 대한 묘사로, 센터 서비스는 기능, 지식의 습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참여자들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가족 내부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던 연구참여자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내, 엄마, 며느리 등과 같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인 연구참여자에게 개인적인

행복과 평온함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을 챙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센터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관계에 당연히 도움이 됐죠. 왜냐면 제가 우울하면 집에 가도 기분이 별로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 밖에서 털어놓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남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것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엄마가 기뻐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리아홍)

기분의 전환 이외에도 센터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센터에 다니기 전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생활반경이 좁았기에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른 가족의 삶의 형태를 알 기회가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에 온 이후로는 다른 다문화가족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육아, 부부관계, 시댁 등에 대한 의문점과 해결책에 대해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센터는 압축된 다문화사회로, 연구참여자들이 중국과 다른 국가 출신의 아내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에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대조하며 스스로를 점검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느꼈던 다른 다문화가족의 좋은 모습을 참고해서 앞으로 자신의 가족과 열심히 삶을 영위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였다. 센터에서 경험하거나 듣게 되었던 일들을 가족과 공유하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해와 대조균이 있어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조균은 한국 가정과 비교하면 안 되고 같은 배경의 사람과 정확한 대비를 가질 수 있어요. 센터를 통해 알게 된 다문화가족들, 그들의 가족생활 패턴, 제 패턴이 올바른지, 우리 아이의 사고방식, (...) 대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서로 대응방식에 관해 이야기도 해보고, 그들이 많은 경험을 알려줬어요. 제 마음도 같이 편해졌어요. (...) 다문화가족, 함께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는 정말 신세계예요. 삶을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 가족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요. 제가 돌아와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진)

위와 같은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의 서비스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감정조절과 한국가족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센터를 장기간 이용함으로써 고부관계 이해, 소가족의 응집력, 부부관계 친밀함 등이 증진하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진란 씨의 사례처럼 평소에 하지 못한 얘기를 가족에게 하면서 소통의 깊이가 더해진 경우도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날 무척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2등을 해서 받은 상품권을 바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날 제가 쓴 글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제가 다른 물건을 잘 못 가져오는 이런 일들. “제가 존댓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말을 많이 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상관없어 하세요” 이런 말은 아마 평생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말이에요. (...) 저는 평소에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도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오해는 당연히 얼마든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얘기하니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 아무튼 다 얘기하고 나서 제가 춤도 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춤도 잘 추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원래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란)

센터의 가족 관련 활동은 평소 가족간의 대화시간이 부족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할 기회를 제공하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자녀와 함께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가족봉사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시간을 채우는 이유도 있으나, 평일 자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하는 남편도 함께 참여하여 온 가족들이 독거노인의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시간 내내 가족들이 함께 응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장영진 씨,

최빙빙 씨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부관계가 화목한 연구참여자는 남편과 함께 정기적으로 센터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밀성을 더 발전시켰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부부의 날, 가족의 날 등 프로그램에서 부부 둘이 저녁에 동네 산책, 매년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남편, 자녀와 함께 보내는 가족 시간을 통해 여러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가족 관련 활동을 통하여 바쁜 일상으로 체력과 마음의 여유가 소모된 가족구성원이 함께 치유할 수 있었다. 가족 관련 서비스를 통해 연구참여자와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많고 추억도 많이 남았어요. 매년 한 번씩 가족사진 찍는 것, 1년에 한 번씩 가족 소풍, 가족 함께 놀러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가족 간의 친밀함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 (가족봉사단) 우리 가족 세 식구. 저, 제 남편 그리고 딸과 같이 한집에 가서 정리하는 것은 함께 힘과 마음을 합치는 거죠. 어려움을 직면할 때 같이 해결할 거예요. 평일 집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한 곳에 갔는데, 이 집은 매우 지저분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했어요. 정리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원래 지저분하였는데 깨끗해졌잖아요. 이 정리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최빙빙)

다른 한편으로 부부교육, 부부상담 등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주로 신혼기간 또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의식이 강한 연구참여자들이 부부 서비스를 혼자 이용하는 경우 또는 남편과 함께 이용했는데 부부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교육의 방식과 효과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상담을 이용했던 연구참여자는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수 없었다고 솔직히 말하였다. 마오단 씨는 부부상담 서비스를 전부 마치지 못하였다. 마오단 씨의 남편이 한 두 번 참석했다가 더 이상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수용과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였던 마오단 씨는 남편의 변화가 없는 관계에서 떠나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마오단 씨처럼 혼자 부부교육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부부관계와 관련한 강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부부관계의 문제점을 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센터의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부 둘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관계 변화가 불가능하며, 홀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묘사하는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은 남성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남편은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문제는 중국인 아내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 부족으로 발생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에 부부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인 남편은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참여자는 상담 수업에서 본인의 삶을 다른 부부 앞에서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남편)는 한 번 참가했고, 나는 몇 번 들었어요. 나중에는 나도 가지 않았어요. 부부교육이라서 늘 내가 혼자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부이며 신체 접촉의 작은 놀이가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부부교육, 이건 분명히 (부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혼자 들어요. 나 혼자만 바뀔 수는 없어요. (저한테) 꽤 손해를 보잖아요. (황친)

3. 초기 어려움을 해결했으나, 심화 서비스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가장 힘든 초기 정착 생활기에 센터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자주 언급하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마디의 한국어도 못하던 연구참여자는 현재 초·중급 한국어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삶의 곳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가 가능하여 한국인 가족, 현지인 등과의 소통을 할 수 있기에 이들의 심리적 부담도 많은 부분에서 완화되었다. 센터에서 습득한 한국어로 사회와 소통의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잘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직접 교육장에 가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방문 교육 서비스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한국어를 습득했다.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과 자녀 돌봄으로 교육장에 자주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60대 방문지도사의 말에 신뢰감이 형성, 이를 통하여 생활 및 육아 정보,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까지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방문지도 교육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한 부분이었다.

방문 선생님은 제 발음이 좋지 않은 부분을 처음부터 가르쳐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무슨 말을 했어?” 라고 다시 묻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 계속해서 가정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영재가 되려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 모든 엄마는 아이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이것도 꽤 좋았어요. (...) 그분들이 모두 한국인 선생님이라서 발음뿐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도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 제 처리 방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하면 상처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인과 의사소통 상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오단)

한국문화의 습득도 서비스의 교육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여러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센터의 문화체험, 요리교실, 한국어교육 등의 서비스 이용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가족과의 소통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했다. 생활에서 발생한 어려움이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센터를 찾아가서 직원이나 중국인 친구에게 편하게 답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의 서비스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 본인, 자녀까지 한국 문화 이해의 증진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인기 높은 서비스가 되었다. 한국은 엄마가 주로 양육을 담당하기에 외국인 엄마로서 자녀의 한국 어휘와 문화 지식의 습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걱정하던 연구참여자들이 센터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

법을 찾은 것이다.

예전에는 민속촌, 경복궁에 가는 문화체험 수업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는 더 많은 문화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자녀양육은 기본적으로 엄마 위주, 아빠는 보조하는 형태, 아빠는 경제를 제공하고 엄마는 교육의 면에서 더 많이 제공해요, 그런데 엄마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는 어느 측면에서 이런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이런 면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배우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황친)

황친 씨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늘 부족함을 느꼈던 한국문화 지식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포함하여 문화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을 특히 만족하였다. 센터의 요리교실, 한식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음식 문화로 인해 겪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 초기에는 한국 요리 어휘를 잘 알지 못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경우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요리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시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이해도가 늘어났음을 이야기하였다. 류효연 씨의 진술처럼 센터의 문화체험은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어머니가 “이 호박을 조각으로 썰어라” 라고 말을 하셨는데 알아들었지 못했어요. ‘조각으로 썰어’ ‘슬라이스로 썰어’ ‘얇게 채를 썰어’ 같은 것들에 알아들지 못해서 둘 사이에 오해가 많았어요. 일하기 싫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 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말이에요, 조금씩 배워야 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이 요리교실을 개설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우리에게 카레, 김치, 제육볶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우리는 보기만 해도 바로 알겠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이 단어를 말했을 때 우리는 아마 바로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최빙빙)

평소 집에서 절대 안 하는 장조림을 배웠는데, 육개장처럼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잘 안 하는 것, 그리고 갈비탕, 해물탕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 저는 아

주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회에 더 잘 녹아들고, 이 나라에 녹아들고, 그(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비록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르지만, 저는 센터를 통해 배웠어요. 우리 남편이 맛있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많은 한국문화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김치를 못 담으면 센터에서 같이 담갔다가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좋잖아요. (류효연)

서비스 내용뿐 아니라, 센터 직원은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주의해야 할 한국식 예절, 한중 문화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통역사가 있는 센터의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편리성과 고향에 대한 친근함이 있기에 중국인 아내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편하게 센터를 찾게 되었다. 중국인 통역사는 보통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언니(姐)라고 불리며 그들의 축적된 생활 노하우로 연구참여자들에게 해답을 알려줄 수 있다. 중국인 통역사와의 유대감으로 인하여 센터와 더욱 가깝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통역사인 우춘련 씨와 중국인 통역사와 친하게 지내는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이 사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센터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언어라든지 그리고 OO(중국인) 선생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일이 있든 없든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한국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많아서, 예를 들어 위층으로 이사 왔어요. 만약 당신 집에 아이가 있다면 아래층에 선물을 줌 보내야 한다고요. 애들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민해서 위층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웃음) 그런데 이걸 중국에서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신고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제가 세상 물정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많아요. (진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센터는 서구 이민자통합서비스의 핵심적 영역인 언어교육과 함께 문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연구참여자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에 센터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센터와 접이 가까운 연구참여자인 경우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센터로 향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진란 씨, 황친 씨 등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에 자주 찾아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에 센터의 직원들이 그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 아내의 초기 사회통합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기거주자, 한국어를 잘하는 참여자, 자녀가 없는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불만이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의 서비스가 초기 이주한 외국인 아내의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결혼이주 외국인 집단내 거주기간, 교육수준, 한국어, 자녀 유무 등 특성상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러한 집단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기본적으로 현재 서비스는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말을 못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비교적 많아요. 한국에 오래 머무른 경험이 있는 우리를 위한 수업이 매우 적어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결혼이민자, 우리는 모두 다 외국인이 맞죠? 한국인처럼 온전히 이 나라에 융합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교육 차별화가 가능하다면 각 단계의 결혼이민자한테 맞춤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한국어를 비교적 잘하고 한국에도 오래 산 사람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거의 없어요. 여러 번 물어봤지만 없다고 했어요. (류효연)

연구참여자들은 이용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외국인 아내의 한국 삶의 출발점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것으로는 최근 결혼이주여성 집단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와 본 연구참여자의 결혼 경로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집단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류효연 씨 등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유학을 통하여 이미 한국어를 습득하였기에 자격증과 같은 취업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현지 사회에 살아가며 최종적으로 통합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내용의 심화와 연속성도 함께 강조하였다. 최병빙 씨는 장기간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현 단계의 취업교육은 주로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내용이 매우 기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기에 정작 취업 후 필요한 심층적인 업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직장과 관련한 정책적 혜택, 노동자 보호 제도 등을 직장생활 시작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외국에서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저임금, 출산휴가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 고용주와 계약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원스톱 서비스처럼 취직의 준비 단계부터 취직 성공까지 필요한 일련의 지식과 절차 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취업뿐만 아니고 부모교육, 문화체험 등 다른 서비스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김장과 같은 문화 체험활동은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알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좋으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기에 활동 내용을 정기적인 형태로 설계하여 심층적인 문화 지식을 추가한다면 한국과 모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자녀양육은 단계별, 체계화가 돼야 해요. 이것은 시스템화 되어야 해요. 이 시스템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교에 다니는 단계.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기간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 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부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다문화센터는 아이의 양육과 교육 방면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채경)

센터에서 습득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비교적 수월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외국인 아내들이 현지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사업 목적과 비전의 심층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정서와 정보 지원, 중국인 네트워크 내에서만 가능

연구참여자들은 센터를 통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등 지식 습득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이 가능하였다.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외국 생활의 외로움을 해소하였고 남편과 자녀를 제외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연구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친구 네트워크(朋友圈)는 정서적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생활지도사, 통역사, 방문교육지도사 등 센터 직원의 친절한 태도로 인하여 센터는 연구참여자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일종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다문화센터에 다녀온 후에는 한국 생활 적응이 많이 좋아졌어요. 소통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매일 집에 혼자 있었고 갈 곳이 없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있고, 외출을 잘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외출을 더 잘 안 해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어요. 다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 아는 사람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고, 남과의 교류가 많아져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보다 피곤함을 덜 느꼈고 마음도 열렸어요, 바로 이야기할 사람이 생겨서 그래요. 혼자만 있으면 매우 우울해져요. (조춘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보다 센터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더 신뢰감을 가지며, 언어의 편안함과 중국인 사이에 타고난 친근감으로 빠르게 중국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집에만 있었을 때 느꼈던 우울함과 외로움은 친구들과 모국어로 대화하며 한국인 가족, 한국인 엄마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삶의 어려움을 서로 쉽게 공감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센터에서 친해진 친구들인 경우, 대부분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기에 평일 서로의 집을 방문하거나 동네 주변을 놀러 다니기도 하였다. 장기 센터를 이용한 연구참여자들은 십 년 전 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자녀의 교육 등 사정으로 예전처럼 자주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더라

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다시 센터에서 모여 강의를 듣고 나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의 친구 관계 형성 및 발전이 가능한 이유는 센터가 이들에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공간은 센터의 교실, 키즈놀이터, 카페 등 물리적인 시설을 말한다. 이 공간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친구와 정서적 교류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 특히 일부 커피숍이 있는 센터 이용자는 카페에서 모국 친구와 모국어로 이야기할 때 외부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하다고 말하였다. 즉 늘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는 센터 안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센터에 가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공간도 제공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 우리 집에 와라, 당신 집에 가자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는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친해질 수 있잖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다문화센터 정말 좋아요. 아니면, 둘이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셔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 돈을 쓸 수 없잖아요. 센터 공간은 매일 사용해도 괜찮아요. (최빙빙)

(센터카페) 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편한 것은, 거기에 앉아서 친구와 함께할 수 있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 급하게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후 내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이런 조용한 전문 카페가 있어서, 모임에서 중국어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남의 눈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옆에 베트남 사람들도 편히 말하고, 소리가 크든 작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 일반 카페에서 얘기하면 항상 옆 사람의 감정에 신경을 써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카페의 좋은 점이 바로 언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리아홍)

이렇게 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동시에 직원이나 모국 친구에게 직접 문의 또는 센터에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중국 WeChat)를 통해 유용한 생활 정보도 얻게 되었다. 우춘련 씨는 본인이 생활하는 동네 센터의 이용자이자 다른 센터에서 중국인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주 초기 때 정보의 단절과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함으로 힘들었던 날들을 겪었기에 중국인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센터의 활동 정보를 알리면서 중국인 아내들이 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센터마다 이러한 중국인 이용자가 모이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간에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네트워크가 튼튼하게 구축되어 중국인 아내가 가진 삶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중국인 카톡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500여 명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이 다문화센터 사이트에 들어갈 줄 모르거나, 다들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하고, 저도 업무용으로 카톡 앱을 켜놓고 일해요. 그래서 당시에 제 주변의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단체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가입 동의한 사람은 이 방에 들어오면 돼요. 단체방에서 센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 이 단체방은 센터의 공식 커뮤니티가 아니라서 평소에 누구나 어떤 정보가 있는지, 생활상 공유하고 싶은 것들 다 이 방에서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교류 때문에 중국인들끼리 예전처럼 폐쇄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우춘련)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교환 및 친목 활동은 주로 중국인 네트워크에 한정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2014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센터는 모두 통합센터로 전환되었으나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한국인 이용자와 교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한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한국어의 발전, 현지인만 알 수 있는 정보의 습득 또는 사회에 대한 더 심층적인 이해 등 측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간의 교류 증진, 정보교환 등 통합의 파생적 효과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2년이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센터의 활동이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지식의 전달 수단은 가능하나 예전처

럼 강의를 마친 후 서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류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 센터 이용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던 연구참여자는 이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면서 하루빨리 센터의 현장 활동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된 연구참여자는 대부분 온라인 활동을 이용하기에 센터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과 친분을 쌓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바로 관계의 변화죠. 코로나19 이전 수업의 경우, 강사와 대면하고, 전 과정을 다 문화센터의 선생님이 동반하고, 우리들이 수업한 후에 함께 소통(交流, 교류)하고, 다문화센터 선생님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뀐 후, 보통 수업시간에 컴퓨터에서 만나요. 수업이 끝나면 다른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이것은 매우 큰 변화였어요. (왕진진)

5. 사회통합을 위한 센터의 중간 역할

사회통합정책의 중요한 영역인 취업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개인역량의 향상과 향후 직업의 방향을 결정하며 센터에서 습득한 기능 또는 일자리 연결로 취업을 하여 한국 사회로 통합을 할 수 있었다. 다문화강사양성과정과 바리스타교육은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취업교육으로 이 두 교육을 통해 연구참여자는 예전에 자신이 몰랐던 개인의 재능, 취향을 발견하였다. 센터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동네 어린이집 또는 학교 등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이 사회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다.

제가 다이음 사업도⁶⁾ 참가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6) 다이음 사업은 외국인 강사가 직접 신청기관 방문하여 다문화이해교육, 체험활동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요. 한국문화와 중국문화를 비교하면서 가르쳤어요. 자아개발에 좋은 기회였어요. 이런 문화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융화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한국 아이들이 중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저로서는 보수(報酬)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 남편은 듣고 나서 제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저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티안웨이)

취업 의사가 강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이용하는 경험이 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여 향후 직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인한테 모국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티안웨이 씨처럼 교육 이수 후에 센터의 연결을 통해 다문화강사로 활동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몇 명이 있다. 그들은 다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 가족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센터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감격하였다.

(다문화강사양성과정)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교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수업을 듣고 제가 교사 될 만한 재능을 발견했어요. 조금씩 발전하고 그리고 다문화강사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한국강사협회에 갔어요. 네, 그곳에서도 학교 강의해요. (...) 그때는 육아만 했죠. 매일 아이를 봐주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큰 아이도 어리고 둘째도 어렸어요. 힘들었어요. 나중에 아이도 컸고, 다문화센터(경험)는 “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변화 꽤 크죠. (류효연)

각 연구참여자가 이용하는 센터의 규모와 사업 목적에 따라 취업자원이 다를 수 있으나 연구참여자 중에서 센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문화강사양성과 바리스타교육이 모두 다 개설이 된 센터에 다니는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양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완료 후 본인의 성향과 더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여 실습하는 기회도 얻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티안웨이 씨와 류효연 씨는 다문화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이며, 황친 씨, 류효연 씨, 양연연 씨, 진란 씨, 리아홍 씨는 센터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실습 및 센터의 소개로 동네 카페에서 시간제 일도 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센터에서 습득한 개인 능력으로 일한 경험은 경제적 수입 측면보다 이를 통해 얻은 성취와 자아에 대한 재발견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타향 생활의 어려움으로 많이 위축된 자신감과 육아로 포기하게 된 자아를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 다문화센터에서 카페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땀어요. 계속 거기에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이 일은 유료 봉사인데 급여는 적어요. 하지만 남편이 항상 지지해요. “가라, 가라” 고 말해요. 거기에 있어서 기쁘잖아요. 한 시간에 벌이는 적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요. (...) 저는 커피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성취감을 느껴요. 특히 라떼아트를 잘하면 성취감이 매우 크게 느껴져요. 남들이 ‘아, 아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는 헛고생한 것 같지 않아요. (리아홍)

취업교육뿐만 아니라, 센터가 다른 기관의 직업교육 또는 일자리를 연결해줘서 직장에 들어간 연구참여자도 있다(마오단, 리아홍).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센터 직원이 취업 관련 정보 수집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이력서, 취업서류 수정까지 다방면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센터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취업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센터의 취업사이트, 취업박람회 등을 잘 활용하여 취업 성공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정채경). 취업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진로를 찾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였다.

다문화센터는 확실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선생님이 제 이력서를 고쳐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력서를 보내서 지금은 병원에서 한중 통번역하고 있어요. (...) 저는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문화센터 선생님에게 빨리 일자리

를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유심히 찾아보셨는데 마침 번역하는 일이 있어서 “한번 해볼래” 저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딱 제가 하고 싶은 것과 맞아”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해보라고 하시는데 이력서를 보내주면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번 고친 후에 선생님이 그 직장에 보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이력서를 보냈고, 그리고 통과했어요. 다문화센터가 저한테 이력서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거기) 못 갔을 거예요. 어머, 제가 그 선생님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 (마오단)

현저사회에 참여와 기여하는 능력도 이민자의 사회통합 기준의 하나로 (Shields et al., 2016) 살펴보았을 때 연구참여자가 개인의 한중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병원,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에서 상황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리아홍, 최빙빙). 이들은 처음에는 딸과 함께 센터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본인과 딸 모두 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생활의 의미를 찾았다. 가족봉사단에 정기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매주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두 번씩 외국인노동자의 법률상담을 위해 통역을 하는 연구참여자(리아홍)도 있다. 봉사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초기 정착 시절에 다행히 센터에서 받은 도움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현재 센터의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비교적 안정되었고, 여러모로 만족해요. 제 미래의 목표는 저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병원의 통역서비스. 그곳에서 진료를 보러 온 중국인들은 불법체류이거나,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처럼 결혼이민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진찰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만약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다문화센터를 모른다고 하면, 제가 당신들의 구역에서 다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회원 가입하면, 많은 무료 서비스가 있다고 말해줘요. 거기(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최빙빙)

최빙빙 씨처럼 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 모두 새로 이주한 외국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센터의 멘토멘티 활동에서 새로운 이주여성에게 멘토의 역할도 했다. 최빙빙 씨와 리아홍 씨가 다른 연구참여자보다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이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였다. 이 두 연구참여자의 공통점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움과 지원을 하는 편으로 가족관계가 화목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주 초기 센터에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여 오래 거주함으로써 현재 본인의 한국 삶은 큰 불편이 없이 사회에 잘 융합(融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연구참여자 외의 다른 연구참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하여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모국에서 살 듯 불편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였다. 이들이 사회에 통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직 자녀양육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상황과 열악한 외국인의 취업 환경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어 일반적인 생활이 적응된 후에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지원기관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취업정보 제공 및 연결, 자격증 교육과 같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센터가 더 많은 기관과 더 많은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회관, 그리고 문화회관, 주민센터 등등, 예를 들면, 인력개발센터에서 재봉수업이 다음 달에 있어요. 비용을 조금 내야 해, 다문화센터쪽의 회원들이 배울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몰랐는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기능 교육이 많아지면 좋아요. 저는 뭘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 필요하다면 돈을 좀 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 시작할지, 어떻게 찾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센터를 매개로 여러 기관들과 더 많은, 협력적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어요. (황친)

센터에서는 이미 앞서 언급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진진 씨의 경우 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얻은 수혜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의 이러한 중간자적 역할을 확대하여 타 기관과 체계적인 협업이 가능할 경우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및 취업자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제 5 장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가 가져온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내 중국인 아내의 삶의 경험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결혼 이주 배경을 가진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국인 아내 14명을 심층 면접하여 얻은 자료를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아내인 동시에 중국 ‘한 자녀’ 세대에 자라난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성역할 태도, 평등적인 관계에 대한 추구, 사회와의 접촉,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추구하는 등의 공통적 특성을 보인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센터는 중국인 아내 삶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고마운 존재이자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센터는 이들의 생활상태, 행위, 능력, 인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의 ‘삶의 질적 변화’를 서비스 운영성과 기준(Martin & Kettner, 1996; Patti, 1987)으로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다문화가족 이용자의 삶에 발생하는 어려움의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구참여자 삶의 전반적인 단계에 걸쳐 존재하며, 정착단계에 따라 그 의미를 조금씩 달리한다. 정착 초기 단계는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우리를 집에서 나오게 해주는 기관”, “친구와 만나는 통로”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 후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와 장기간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이에 이들은 더 나아가 “제2의 친정집”, “오아시스, 쉬는 항

구”, “삶의 일부” 등으로 그 의미를 표현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하는 몇 개의 의미단어를 통해서 센터가 중국인 아내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지식과 정보의 습득, 인적 자본 형성, 자신감 및 개인 가치 실현 등의 도움과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영역에 주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두 번째 친정집, 오아시스, 쉬는 항구’ 등의 표현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센터에 가지는 정서적 안식처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외롭고 어려운 외국 생활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센터의 존재는 이들의 일상에서 큰 위로가 된다. 센터에서는 모국어로 친구들과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에서 겪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유사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을 일정 수준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센터는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들에게 잠시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위안감을 준다. 남편과 충돌이 생겼을 때 “내 뒤에서 누군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친절과 같은 존재이자 동시에 삶의 답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힘들 때 친절에 돌아가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를 받으며 나름의 해결책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마지막으로 바쁜 생활로 이용 빈도는 줄었지만 생각이 날 때, 관심 분야 서비스가 있을 때,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고 싶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편안하게 센터를 찾는다. 중국인 아내가 센터에 가지는 친근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이는 멀리 시집간 딸이 언제든지 친절에 가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가진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구에 각자 살던 중국인 개개인을 한 집단으로 연결해서 외국생활에서 느끼는 친구의 존재에 대한 이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중국인 아내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서 및 정보교환이 매우 필요한 집단이다. 이들은 센터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센터 이용 전 이들은 ‘고향 친목회’, ‘재한 중국인 카페’에 가입

하여 친구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만남으로 신분이 불확실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여 스스럼없이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중국인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이들은 가족생활 공감 및 문제 해결책을 찾는 통로가 되며 동시에 지역에서 취업, 육아, 사회복지 등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센터는 연구참여자에게 지역구의 친구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생활 관계망을 넓히는 연결점 역할로 그들의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셋째, 센터는 외국인 아내의 초기정착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센터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어를 포함하여 이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 문화, 개인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착 초기는 가족관계 및 사회와의 소통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센터와 같은 보호망이 없다면 한번의 어려움에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 그들이 삶의 활주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었다. 이들에게 센터는 외국인 아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마치 명품 자동차를 탑승하고 편안하게 해외에서의 삶을 주행하는 것과 같다. 특히 개인적 가치실현과 취업 욕구가 강한 중국인 아내는 센터의 직업교육, 개인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를 발판으로 삼아 다문화강사, 통역사 등의 직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센터는 중국인 아내의 한국정착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구참여자들의 장기이용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일부가 되어 애착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 ‘떨 수 없는 삶의 일부’는 연구참여자들의 센터에 대한 애착을 잘 묘사한 표현이다. 특히 센터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초기 정착 시 어려움을 해소한 것 외에도 자녀 관련 서비스와 개인의 취미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센터를 자주 찾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센터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의로

인식되는 센터는 한국어 미숙으로 위축된 중국인 아내에게,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중국인 아내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찾게 해주었다. 이들은 센터가 다문화가족 중국인 아내들이 수시로 출입 가능한 곳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센터에 대한 이들의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서구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를(George et al., 2017; Kaushik & Drolet, 2018; Thomas et al., 2016) 종합해보면 센터의 사회통합 지원성과는 중국인 아내의 한국어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센터에 대한 정서적 의지 등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센터의 사회통합 지원이 중국인 아내의 초기정착 단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착 초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 중국인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경우 중국인 아내의 한국 생활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 아내에게 제공하는 사회통합 지원은 서구와 마찬가지로(Critelli & Yalim, 2020; George & Selimos, 2018) 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정착의 목표인 ‘이민자가 장벽이 없이 충분한 자유로 사회참여의 수준을 선택하는 것’ (Shields et al., 2016)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연구참여자는 센터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즉, 센터는 이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 가족정책의 지원영역 분야에서 살펴봤을 때, 센터 사업은 중국인 아내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발달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다양해지는 다문화가족에게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러기 아빠를 둔 다문화가정에서 겪는 아버지 양육 및 교육 참여의 결핍을 센터를 통해 다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관계 개선 측면에서 장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단일한 서비스보다 차별화된 다양한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관계 개선에 장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상담, 부부교육 등을 통해 부부의 공통된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가족봉사단, 각종 가족행사의 장기적인 참여를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응집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중국인 아내가 가족생활 영위의 주된 담당자로서 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가족생활의 유지 및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특히 친정 부모의 지원을 중요시하는 중국인 아내의 경우 센터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정서와 생활정보, 돌봄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센터는 이들에게 일종의 친정처럼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자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30대, 40대 초반인 참여자들은 아직 한국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기본 단계로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은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서구연구에서 밝히는 사회통합의 지표들을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이들은 한국국적 취득, 한국어만 사용, 한국인 친구와 주류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이주 사회에 동화된 지표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발현된 한국내 중국인 아내들의 사회통합은 서구의 맥락과 달리, 개인적 지역사회 통합보다는 가족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로 사회생활에 진입하여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원한다. 이와 같은 가족통합과 경제통합의 양립은 한국의 맥락에서 외국인 아내의 사회통합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센터 사업은 외국인 아내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가족관계 증진 등 가족생활에 긍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외국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센터가 외국인 아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센터의 도움이 없는 구직활동은 더욱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중국인 아내인 경우, 센터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들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한다.

물론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은 개인과 가족, 사회의 복합

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 및 장기간의 경과를 통해 실현될 수 있기에 센터의 지원사업만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어려우나,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중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용자의 진정한 사회통합에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참조하여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학술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자녀’ 세대인 중국인 아내의 모습과 이들이 추구하는 ‘통합’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자녀’ 세대인 중국인 아내는 이중적 성역할 태도 속에서 가족생활과 현지 사회 안에서 자아실현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다. 즉, 개인의 노력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또는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일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강조해왔던 외국인 아내의 문화적 통합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과는 달리, 본 연구참여자의 한국에서의 삶은 가족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까지의 사회정착을 위해 이들이 한 노력은 주로 가족관계, 자녀양육을 위한 것이다. 현지 사회에 ‘통합’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족생활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들의 가족생활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었음을 전제로 개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의 현재 삶의 중심은 가족생활이며 가족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아 가치의 실현, 사회 참여 등 기존 연구에서 논의했던 사회통합 지표를 추구할 여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이들이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인 아내를

포함하여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은 독립적인 개인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목표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나 사회통합은 표면적일 뿐 실체는 다문화를 확산시키기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문화 동화적 성격이 강한 정책(공은숙, 2009; 김태원, 김유리, 2011; 이성순, 2011; 이운정, 2010; 이해경, 2009)이라는 선행연구의 추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자녀’ 세대의 중국인 아내들은 중국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이들의 관점에서 센터의 한국어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의식을 동화시키려는 의도로 인지하기 보다는 생활상 어려운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학습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한국문화를 자신들의 가족과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필요한 지식으로 인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는 이들의 남편과 시댁 등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 증진, 사회와의 소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기존 양적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논거로 참고할 수 있다. 일례로, 강한 공평성 의식을 가진 중국인 한족 여성이 남편과 가정지출 또는 자녀양육 등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크게 불만족하다는 양적 연구결과(당징야, 진미정, 2018)에 대해서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며, 더불어 중국인 아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점, 한국인 남편의 가부장적인 의식 등이 의사결정의 공평성을 깨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아내보다 중국한족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Sung et al., 2013)는 중국인 아내의 학습에 대한 강한 욕구, 자녀양육 및 생활 정보의 획득 등이 센터 서비스를 통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로 중국의 80, 90년대에 출생한 ‘한 자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중매로 결혼을 한 일부 연구참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자는 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력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외국인 아내의 한국생활 양상과 정책적인 요구는 학술적인 참고자료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남편에 대한 가족부양자 역할기대 및 자녀양육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문화 지식의 습득, 역량 강화, 취업을 통한 사회 진입 등 여러 개인적 성장 욕구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이와 같이 외국인 아내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통합’, ‘생활만족도’ 등의 측정 척도를 개발할 시 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3. 정책 제언 및 후속연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과 후속연구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중국인 아내는 자녀양육을 본인의 역할로 생각함과 동시에 남편의 적극적 참여를 원한다. 대부분 부부는 나이 차이가 있기에 한국인 남편들의 세대적으로 강한 가부장 의식은 부부간의 문화적 인식, 자녀 양육방식의 충돌을 야기하여 결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아내는 센터 내의 한국문화강좌 및 부부교육서비스를 이용하나, 남편의 노력과 변화가 없을 경우 아내들은 일방적으로 현실을 수용하거나 포기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족 관련 활동 역시 남편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의식이 강한 남편은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남성의 가사 및 양육 참여 부족과 가부장적 의식은 다문화가족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 언론, 기업, 학

교, 정부 부처 등 사회의 전반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사회의식 전환 교육이 요구될 것이다. 센터 역시 기업, 구청, 생활 단지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아버지 방문 교육’, ‘아빠와 함께’ 등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국인 남성 의식 전환에 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식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나 한 발짝 한 발짝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 지원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양육과 교육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는 학업성취보다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더 중요시하며 이는 중국 본토에 있는 ‘한 자녀정책’ 시대에 성장한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와 일치한다(Chuang et al., 2018; Way et al., 2013).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가 열심히 자녀의 양육과 교육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외국인 출신 엄마로서 자녀의 성장에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대부분 남편과 시댁의 도움이 부재하는 조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육 정보가 부족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통로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는 아직 어리기에 센터의 부모교육 또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서비스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발달의 전체 단계에 걸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담당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때 홀로 자녀양육을 하는 외국인 아내에게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양육과정에서 외국인 아내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경우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통합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성화사업 영역의 보유가 필요하다. 다문화센터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중국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식, 정보, 정서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아내의 사회정착과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중매결혼과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내에게 필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가족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한 곳에서 가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모국인 자조모임 등의 외국인 이용자의 사회정착에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생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운영의 보장이 필요하다.

넷째, 지원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중국인 아내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주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내용의 심도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점은 단일한 서비스를 통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당해 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다음 해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즉, 1년 안에 센터의 여러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는 경우, 빈도는 낮으나 이용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점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가 줄어들며 이는 센터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육서비스 내용은 정착 초기 이용자를 위해 설계되어 있기에 센터 장기이용자들은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효율성이 비례하지 않게 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책적 이슈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다문화가족의 성평등 등의 교육사업은 최근 10년의 중점인데(여성가족부, 2022b), 장기적인 사업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 매뉴얼이 없이 각 지역구 센터의 자율 개발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즉, 건강가정진흥원과 같은 중앙기관에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사업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이에 따라 각 지역구 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현재 다문화가족 외국인 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전업주부로 설정하던 이용자 대상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초적인 교육내용보다 외국인 아내의 정착과 가족생활 단계에 맞춰 심도 있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과 개인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취업 지원은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인 아내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다. 직업을 가지는 것은 이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의 면에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이 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면 자녀양육, 가정소비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편과 평등한 위치에서 상의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강조하였다. 특히 가정경제 상태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Karney & Bradbury, 2020)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외국인 아내의 취업은 개인적 이득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센터는 다문화강사양성과정, 바리스타교육 두 개 직업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바리스타교육의 경우는 각 센터의 재정예산과 후원에 달려있기에 개설하지 않은 센터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 두 개의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한 인력풀의 규모에 비해 실제 일자리 연결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22년 가족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22b)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서 제시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내용에는 한국어교육만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를 대표하는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역량강화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이며 센터는 관련 기관들의 취업과 기능 교육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본 연구결과가 일부의 외국인 아내, 즉 중국의 ‘한 자녀정책’ 세대 여성 목소리만 대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아내는 지식 습득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 집단으로 센터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에 만족하는 점이 있는 반면에 지식의 심도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이주여성과 달리 개인적 연애를 통해 국제결혼한 사례가 많았다. 연애 결혼한 이주여성은 부부관계의 평등, 경제적 상황, 가족과 사회생활 등의 적응에 있어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여성들은 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이용한 장기이용자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을 대표한다. 센터를 한두 번 이용한 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센터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삶의 경험과 정책 이용 경험을 결합한 연구주제로 다른 출신국 또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속하고 있는 외국인 아내의 목소리를 수집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른 국가의 문화적 맥락과 외국인 아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오는 이용자의 목소리와 정책적 요구는 본 연구와 다를 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아내 집단과 다른 외국인 아내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한국 결혼이주여성 삶의 연구와 정책 발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조가 점차 다양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맞벌이 다문화가족, 한부모 다문화가족, 부부가 둘 다 외국인 출신인 다문화가족 등 다른 생활패턴의 가족들이 갖는 삶의 어려움 및 정책적 욕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내용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가족생활은 가족구성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관련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이해와 어려운 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 등은 한국인 남편의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이용자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미

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질의 종단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중 센터를 이용하기 전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증적 지표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센터 이용 전과 후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종단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공수연, 양성은(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2(1), 133-150.
- 공은숙(2009). 다문화정책인가 동화정책인가: 한국에서의 다문화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지인문학**, 27-49.
- 권태연(2018).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 239-250.
- 김기화, 김영순(2018).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여성학연구**, 28(1), 155-184.
- 김선희, 전영평(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46(4), 305-330.
- 김승일(2019).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논문.
- 김안나, 최승아(2016).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7(2), 281-308.
- 김영옥(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129-160.
- 김유진, 오성배(2013).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열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1(3), 135-160.
- 김윤경, 이부미(2019).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어린이교육비평**, 9(1), 5-35.
- 김태영(2014).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6(2), 55-70.
- 김태원, 김유리(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 323-362.

- 김태훈, 배성훈(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59-296.
- 김혜원, 임춘희(201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27-53.
- 덩징야, 진미정(2018).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의사결정 공정성인식과 성열할태도가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1), 121-137.
- 류진아(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취학관련 경험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2(2), 599-620.
- 문성은, 방은령(2012). 충청남도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359-384.
- 민가영(201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83-104.
- 박시균, 최은하(2012). 결혼이주여성의 정부지원 한국어교육사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전라북도 3개 도시(전주·익산·군산)와 광주광역시 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7, 351-386.
- 박충선, 배나래 (2011). 다문화가족의 갈등양상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통합방안 연구. **아시아연구**, 14(3), 127-149.
- 박홍련(2021). 도쿄 거주 중국인 여성의 일-돌봄 균형 전략과 ‘좋은 어머니’ 상. **한국여성학**, 37(2), 73-99.
- 법무부(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8&fn=temp_1625184955073100 에서 인출.
- 서은영, 박연환, 김성재(2008). 유방암 환자의 치료 전 경험. **기본간호학회지**, 15(4), 418-426.
- 서지은, 최현미(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서비스 이용결정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8(3), 23-43.
- 성미애(2011).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63-81.

- 손병돈(2014).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34(4), 354-384.
- 신미정, 이봉민(2015).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참여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의 관계: 경기남부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1-24.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사업안내(I)(II)**.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42 에서 인출.
- 여성가족부(20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 “**가족센터**” 로 불러주세요.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에서 인출.
- 여성가족부(2022a).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시행계획**.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에서 인출
-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가족사업안내(I)(II)**.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에서 인출.
- 유은주(2013). ‘다문화’ 정책의 프레임 전환을 위한 연구: 정착기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험에 근거하여. **가족과 문화**, 25, 50-79.
- 이경은, 박창제(2009).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족과 문화**, 21(4), 119-143.
- 이부미(2016).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목소리: 자녀양육 경험과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0(2), 397-418.
- 이성순(2011).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179-208.
- 이수정, 김우리(201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8(3), 119-141.

- 이운정(2010).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370-378.
- 이은경(2016).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자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부모양육행동의 구조적 관계. **열린교육연구**, 24(1), 333-355.
- 이혜경(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4), 147-166.
- 전자배(2018).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1(3), 121-146.
- 정옥희(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20(2), 23-37.
- 정용균(2019).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대한 사례연구: 강원지역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40, 27-49.
- 정유리(2014).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4(1), 55-82.
- 최금해(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최새은, 김미영, 손서희(2020).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통합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혼합방법론 접근. **가정과삶의질연구**, 38(3), 99-116.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 통계청(2016). **2015년 혼인·이혼 통계**.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52513 에서 인출.
- 통계청(2019). **인구 총 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

- 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에서 인출.
통계청(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 에서 인출.
- 통계청(2022). **2021년 혼인·이혼 통계**.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7326 에서 인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 결과보고서**.
https://www.kihf.or.kr/lay1/program/S1T62C69/photo/arlim/hongbo/view.do?article_seq=1113726&cat=46 에서 인출.
- 한지은, 이계승(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이용 결정 연구: 개인차와 환경의 조절효과 중심. **사회복지연구**, 49(1), 133-161.
- 현경자(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용과 결혼의 안녕 및 희망의 관계: 문화상대주의와 강점관점에 기반한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2), 127-157.
- 현경자, 김정화(2017). 다문화부부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갈등반응행동간의 관계에서 희망과 부부친밀성 및 지원서비스 이용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7(1), 140-180.
- Barrington-Leigh, C., & Wollenberg, J. T. (2019). Informing policy priorities using inference from life satisfaction responses in a large community survey.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4(4), 911-924. <https://doi.org/10.1007/s11482-018-9629-9>
- Berry, J. W. (2006). Acculturative stress. In P. T. P. Wong & L. C. J. Wong(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pp. 287-298). Langley, BC, Canada: Springer.
- Bogenscheider, K. (2014). *Family policy matters: How policymaking affects families and what professionals can do* (3rd ed). New York, NY: Routledge.

- Branyon, A. P. (2017) “A home for me when i am so far from home” : Perceptions of libraries by immigrant mothers in language acquisition and cultural acclimation. *Public Library Quarterly*, 36(3), 185-198. <https://doi.org/10.1080/01616846.2017.1316147>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pp. 793-828)*. New York, NY: Wiley.
- Chuang, S. S., Glozman, J., Green, D. S., & Rasmi, S. (2018). Parenting and family relationships in Chinese families: A critical ecological approach.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0 (2), 367-383.
- Chung, G. H., & Yoo, J. P. (2013). U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adjustment among interethnic and interracial famili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1), 241-253.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2.00754.x>
- Critelli, F., & Yalim, A. C. (2020). Improving access to domestic violence services for women of immigrant and refugee status: a trauma-informed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29(1-3), 95-113. <https://doi.org/10.1080/15313204.2019.1700863>
- Dias, S., Gama, A., & Rocha, C. (2010). Immigrant women’ 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health care services: Insights from a focus group study, *J Public Health* 18, 489-496. <https://doi.org/10.1007/s10389-010-0326-x>
- George, G., Selimos, E. D., & Ku, J. (2017). Welcoming initiatives and immigrant attachment: The case of Windsor.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gration*, 18, 29-45.

<https://doi.org/10.1007/s12134-015-0463-8>

- George, G., & Selimos, E. D. (2018). Using narrative research to explore the welcoming of newcomer immigrants: A methodological reflection on a community-based research project.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9(2). <https://doi.org/10.17169/fqs-19.2.2907>
- Graauw, E. D., & Bloemraad, I. (2017). Working together: Building successful policy and program partnerships for immigrant integration. *Journal on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5(1), 105-123. <https://doi.org/10.1177/233150241700500106>
- Guest, G., MacQueen, K.M., & Namey, E.E. (2012). *Applied thematic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Higginbottom, G. M., Morgan, M., Alexandre, M., Chiu, Y., Forgeron, J., Kocay, D., & Barolia, R. (2015). Immigrant women's experiences of maternity-care service in Canada: A systematic review using a narrative synthesis. *Systematic Reviews*, 4, 1-13. <https://doi.org/10.1186/2046-4053-4-13>
- Hook, J. V., & Glick, J. E. (2020). Spanning borders, cultures, and generations: A decade of research o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 224-243. <https://doi.org/10.1111/jomf.12621>
- Hou, Y., Kim, S. Y., & Wang, Y. J. (2016). Parental acculturative stressors and adolescent adjustment through interparen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Chinese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7), 1466-1481.
- Hwang, M-C. (2016)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 Examining integration with immigrant wives in South Korea,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2(5), 630-650. <https://doi.org/10.1080/01488376.2016.1216917>

- Ji, Y. (2015).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Leftover” women in Shanghai.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5), 1057–1073. <https://doi.org/10.1111/jomf.12220>
- Karney, B. R., & Bradbury, T. N. (2020). Research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in the 2010s: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100–116. <https://doi.org/10.1111/jomf.12635>
- Kaushik, V., & Drolet, J. (2018). Settlement and integration needs of skilled immigrants in Canada. *Social Sciences*, 7(5), 76. <https://doi.org/10.3390/socsci7050076>
- Kim, H. (2013). Factors associated with service utilization behavior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4), 57–94.
- Lee, J., Choi, M., Huh, J., & Chang, A. (2016) Community interpreting services by marriage migrants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24(2), 179–200. <https://doi.org/10.1080/0907676X.2015.1052524>
- Li, C-H & Yang, W. (2020). Happiness of female immigrants in cross-border marriages in Taiwa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14), 2956–2976. <https://doi.org/10.1080/1369183X.2019.1585015>
- Lune, H., & Berg, B. L. (2017).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Harlow, England: Pearson.
- Martin, L. L., & Kettner, P. M. (1996).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human service programs*. Thousand Oaks, CA: Sage.
- Milena, Z. R., Dainora, G., & Alin, S. (2008).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comparison between focus-group and in-depth interview. *Annals of the University of Oradea, Economic Science Series*, 17(4), 1279–1283.

- Neufeld, A., Harrison, M. J., Stewart, M. J., Hughes, K. D., & Spitzer, D. (2002). Immigrant women: Making connections to community resources for support in family caregiving.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2*(6), 751-768. <https://doi.org/10.1177/104973230201200603>
- Patti, R. (1987). Managing for service effectiveness in social welfare: Toward a performance model.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1*(3/4), 7-21.
- Roth, B. J., & Grace, B. (2018). Structural barriers to inclusion in a latino immigrant new destination: Exploring the adaptive strategies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South Carolina.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gration*, *19*, 1075-1093. <https://doi.org/10.1007/s12134-018-0587-8>
- Selimos, E. D., & George, G. (2018). Welcoming initiatives and the social inclusion of newcomer youth: The case of Windsor, Ontario. *Canadian Ethnic Studies*, *50*(3), 69-89.
- Settles, B.H., Sheng, X., Zang, Y., Zhao, J. (2013). The one-child policy and its impact on Chinese families. In: Kwok-bun, C.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hinese Families* (pp. 627-646). New York, NY: Springer.
- Shields, J., Drolet, J., & Valenzuela, K. (2016). Immigrant 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s and the role of nonprofit providers: A cross-national perspective on trends, issues and evidence. RCIS Working Paper, No. 2016/1. Retrieved from https://www.ryerson.ca/content/dam/rcis/documents/RCIS%20WP%202016_01%20Shields%20et%20al%20final.pdf.
- Sung, M., Chin, M., Lee, J., & Lee, S. (2013). Ethnic variations 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iv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1), 226-240.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2.00753.x>

- Szelényi, K., & Chang, J. C. (2002). Eric review: Educating immigrants: The community college role. *Community College Review, 30*(2), 55-73. <https://doi.org/10.1177/009155210203000204>
- Thomas, R. L., Chiarelli-Helminiak, C. M., Ferraj, B., Barrette, K. (2016). Building relationships and facilitating immigrant community integration: An evaluation of a Cultural Navigator Program.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55*, 77-84. <https://doi.org/10.1016/j.evalprogplan.2015.11.003>
- Torres, L., Driscoll, M. W., & Voell, M. (2012).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latino psychological distress: A moderated mediational model.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8*(1), 17-25. <https://doi.org/10.1037/a0026710>
- Way, N., Okazaki, S., Zhao, J., Kim, J. J., Chen, X., Yoshikawa, H., . . . Deng, H. (2013). Social and emotional parenting: Mothering in a changing Chinese society.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 61-70. <https://doi.org/10.1037/a0031204>
- Wu, Q., & Chow, J. C-C. (2013). Social service utilization, sense of community, family functioning and the mental health of new immigrant women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0*(5), 1735-1746. <https://doi.org/10.3390/ijerph10051735>
- Xia, Y. R., Do, K. A., & Xie, X. (2013). The adjustment of Asian American families to the US context: The ecology of strengths and stress. In G. W. Peterson & K. R. Bush(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3rd ed, pp. 705-722)*. New York, NY: Springer.
- Yeung, W-J. J., & Mu, Z. (2020). Migration and marriage in Asian context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14),

2863-2879. <https://doi.org/10.1080/1369183X.2019.1585005>

Yoo, J. P., Kim, H., & Han, K-H. (2020)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 utilization of marriage migrants in Korea: Focusing on differences by women's country of origin. *The Social Science Journal*, 57(1), 39-57. <https://doi.org/10.1016/j.soscij.2019.03.012>

Abstract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Chinese Women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Ding, Jingya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ng-term experiences of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ervices on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among Chinese wives living in Kore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Chinese wives in their 30s and 40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Chinese wives in their 30s and 40s (born in the 1980s and 1990s) belong to the “one-child policy” generation in China, and generally have a high level of education with a four-year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degree. Through the perspectives and voices of Chinese wives with these backgrounds, their Korean lifestyle and policy demands for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were investiga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ere conducted for four

months (from August to December, 2021); each participant partook in two interviews for approximately 1 h 30 min to 2 h per participant. Data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derived central themes were “efforts to solve life’s difficulties and using the center.” and “changes after using the center and wishes for the center.”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Chinese wives in a dual gender role attitude us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for resolving difficulties in child-rearing,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and parents-in-law, and acqui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family and social life. The center services affected their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process positively, resulting in the following changes:

First, centers could be used as a source of great comfort in the lonely and difficult foreign lives of Chinese wives. The center provided them with comfort, offering a place where they could escape for a while when difficulties in family life arose. Second, the burden of raising children for Chinese wives was reduced through parent education and child-related services provided by the center, in addition to changes, such as improv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and enhancement of family cohesion through various family activities. Thir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played a role in forming a “friend network” among Chinese individuals living in each local constituency. In addition to offering emotional support, it was possible to exchange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life, education, and employment through the network. Fourth,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cquired through the center were a great help in resolving the difficulties of Chinese wives in the early stages of settling down. Lastly, Chinese wives, who had a strong desire to realize individual values and find employment, were able to engage in vocational

activities, such as multicultural instructors, baristas, and interpreters through the center's vocational education and personal empowerment-related servic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wives from the "one-child generation" viewed social integration as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their husbands, successfully raising children through personal efforts, and becoming financially independent through work. Second,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criticiz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ervices as a service with strong cultural assimilation characteristics that educat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hinese wives recognized that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ere practically helpful for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Third, it was confirmed in this study that Chinese wives' strong desire for a job and working life wer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true integration with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center helped with their employment training and connection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center's support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of Chinese wives was significantly high, and the family life support service contributed to reducing their burden of raising children and developing the children's sociability.

The policy demand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center's services were mostly limited to infa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demand for parental education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adolescent children. Second, Chinese wives considered raising children as their role but simultaneously want husband to actively particip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entire society to make an effort to change the patriarchal consciousness that still exists and the absence of Korean men'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Thir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child-rearing and education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al stage of children in supporting the family life of foreign wives (referring to participants' experiences in this study of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raising children and collecting educational information). Fourth, specialization projec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uch as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self-help meetings) play a positive role in the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ives. Fifth, considering the opinions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y were mainly dissatisfied with the continuity of the service and the depth of content; therefore, a long-term support project is required. Lastly, the participants requested the expansion of education and employment resources that could strengthen individual capabilities through systematic collabo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by the expanding the center's intermediary role. In particular, Chinese wives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had high expectations for the center's employment support services regarding connecting high-quality jobs. Because getting a decent job can help a lot in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the center needs to provide and expand support for employment and personal empowerment-related services to foreign wives.

keywords : “one-child policy” generation, Chinese wives, family life,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ervices, thematic analysis

Student Number : 2014-31447